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수 미

2020년 8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지도교수 현 승 환

김 수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김수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현 정	
위 원	최 대 희	
위 원	현 승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Th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of  
Honggyewoljeon  
Using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Kim Su-mi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yun Seunghwan,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김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본 연구는 영웅소설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고등학교 교육 내용인 <홍계월전>이다. 그 방법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영웅소설 교육은 학습자의 괴리감과 수동적 학습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육적 관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홍계월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홍계월전>이 양성적(兩性的) 성격과 진보적 성향을 띠는 작품임을 파악하였다. 셋째,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학적 비평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영웅소설의 구조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교수·학습의 기저가 된다. 넷째,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 주체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그 방법으로 발문과 보조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영웅소설에 적용된 7개의 성취기준 모두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계월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육적 가치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영웅소설의 보편적인 구조에 따라 학습 요소와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영웅소설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더불어 영웅소설에 적용된 모든 성취기준에 도달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화 및 현실화하였다. 이는 실제 영웅소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수를 도우며 이러한 점은 이 논문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 주체 간의 상호작용, 합의를 통한 지식 구성, 영  
웅소설 교육, <홍계월전>

# 목 차

## <국문초록>

<b>I. 머리말</b>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7
<b>II.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육적 관점 및 활용 기준</b> .....	12
1. 지식에 대한 관점 .....	13
2. 수업 및 학습에 대한 관점 .....	17
3. 교육적 활용 기준 .....	23
<b>III.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을 위한 &lt;홍계월전&gt;의 성격 분석</b> ....	29
1. 여화위남(女化爲男)의 의미 .....	30
2.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 .....	33
3. 진보적 본보기 .....	44
<b>IV. &lt;홍계월전&gt;의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학습 요소</b> ....	47
1. 사건 .....	47
2. 인물 .....	55
3. 배경 .....	60
4. 주제 .....	68
<b>V. 사회적 구성주의를 적용한 &lt;홍계월전&gt;의 교수·학습 방안</b> ....	70
1. 도입 .....	73
2. 전개 .....	76
3. 정리 .....	99

V. 결론 .....	101
<참고문헌> .....	103
<Abstract> .....	110



## <표> 목 차

<표 1>	16
<표 2>	21
<표 3>	27
<표 4>	44
<표 5>	48
<표 6>	76

## <그림> 목 차

<그림 1>	15
<그림 2>	18
<그림 3>	20
<그림 4>	26
<그림 5>	33

# I. 머리말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合意)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교육 내용인 영웅소설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sup>1)</sup>는 보편적 진리를 개인의 지식이 대화로 공유된 결과이며 사회적 협상물이라고 본다.<sup>2)</sup> 다시 말해 사회적 구성 측면에서 지식의 공유를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합의’된 지식은 객관적 성격<sup>3)</sup>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성격은 효과적인 영웅소설 교수·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괴리감을 완충시킨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 중 영웅소설의 성취기준은 크게 한국 문학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배경<sup>4)</sup>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성취기준은 한국 문학의 특징과 변화 양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보

- 
- 1) 사회적 구성주의의 근간인 구성주의는 인간의 지식 형성 및 습득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이론으로,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지식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고 본다. 또한 인간이 경험하는 실재의 세계는 비독립적이며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의해 성립된다고 말한다. 즉 구성주의란 경험을 통해 획득한 기존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의미부여과정)까지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때의 지식은 인간들이 구성한 결과이며, 인식 주체와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생존하거나, 살아가는 데 ‘유용한’,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혹은 ‘용납’되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식은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되나, 독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되거나 통용될 수 있다. 김관수 외 6명,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2000, 17~19쪽 참고.
  - 2) 김관수 외 6명, 앞의 책, 19쪽 참고.
  - 3)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객관성을 ‘합의성’, ‘협정성’, ‘사회성’이라고 표현한다. 강인애 외 8명,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1999, 109쪽.
  - 4) 현재 12종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10종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가 쓰이고 있다. 이 모두를 살펴본 결과 영웅소설은 주로 ‘한국 문학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텍스트로 쓰이고 있다. ‘한국 문학의 흐름’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내세운 출판사는 비상(박영)-고등 국어-, 비상(한)-고등 문학-, 천재(김)-고등 문학-이며,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준으로 내세운 출판사는 동아-고등 문학-이다.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두 성취기준의 특성은 영웅소설 교육 시 작품 창작 당시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영웅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전통적 이념을 학습하여야 한다. 때문에 학습자가 영웅소설을 학습할 때, 현대의 이념과 전통적 이념 사이의 마찰로 인해 괴리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의 괴리감을 완화하여 영웅소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두 성취기준의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웅소설은 임병양란 이후 창작된 작품군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민중을 구원하여 줄 인물에 대한 염원이 작품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 영웅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 구성원, 즉 민중의 합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인물이다. 이와 같은 민중의 합의는 문학작품 창작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이유를 알 수 있는 기저가 된다. 이를 활용하여 과거의 모습을 현재와 연관을 지어 둘 사이의 유사성을 살펴보는 학습을 한다면 학습자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주체적 작품 수용이 가능하다. 현행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문학이 “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작품을 수용·생산하는 능력”<sup>5)</sup>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sup>6)</sup>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sup>7)</sup>을 열어두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웅소설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이해보다는 교과서와 지도서에 바탕을 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sup>8)</sup>로 지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편적 이론전달 수업은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수동적 태도를 초래하며, 학습자의 작품 이해 및 교과서 학습 활동을 단순 개념 확인 활동에 그치게 한다. 때문에 학습자는 지식의 수동적 습득으로 인해 지식을 고정·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작품에 대한 주체적 관점을 배제한 채 교사의 정보(지식)를 절대적이라 생각하게 된다. 즉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작품 수용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작품 수용 측면에서 미비(未備)한 교수·학습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방적인 분위기는 학습 주

5) 교육부a,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교육부, 2015, 107쪽 재인용.

6) 교육부a, 앞의 책, 111쪽.

7) 교육부a, 앞의 책, 112쪽.

8) 본 연구에서의 일방적 지식전달은 ‘폐쇄형 발문을 활용한 단순 설명과 고어 및 한자어의 해석’을 의미한다. 김진희, 『토론연극을 활용한 <방한림전> 교육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쪽.

체)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을 도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작품에 대한 지식을 공유 및 전달하고,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주체적 해석을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웅소설 <홍계월전>에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적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이념의 골을 완화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홍계월전>에 적용하여 구성원 간의 합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Vygotsky)의 비계<sup>10)</sup>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개념과 지식 구성의 과정을 파악한 후, 비계를 실제 교과에 적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을 찾는 데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9)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 구성원은 교사와 학습자로, 이들은 학습의 주체이다. 즉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 교육에서의 상호작용 대상을 '학습 주체'로 보고자 한다.

10) 비계는 은유적 표현이다. 본래는 건설 현장 용어로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의미한다. 교육에서는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학습자 개인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교수자가 비계를 통해 도움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관계의 교육학』, 살림터, 2015, 105쪽 참고. 또한 비계는 우드(Wood)와 브루너(Bruner) 등이 비고츠키의 이론을 적용하여 효과적 교수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소개된 용어이다. 실제로 비고츠키가 제시한 개념은 아니나, 그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료에서도 비고츠키의 이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비계를 비고츠키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한순미, 『비고츠키와 교육(문화·역사적 접근)』, 교육과학사, 1999, 139쪽 참고. 비계는 2장 2절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 1) 사회적 구성주의에 관한 연구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지식 구성과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구성주의를 과학과 관련지어 설명한 연구자는 김기홍<sup>11)</sup>과 박승배<sup>12)</sup> 등이 있다. 김기홍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형성과 지식 구성과정을 살펴보고 사회적 구성주의와 관련하여 자기준거적 성격은 사회적 제도와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박승배는 과학의 이론대상과 이론 사실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사회적 구성주의자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이 둘의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입장을 과학적 시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학적 시각으로의 기술은 교육적 측면과 연관을 지어 적용하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를 교과와 연관하여 설명한 연구자는 김항인<sup>13)</sup>, 서진원<sup>14)</sup>, 윤영돈<sup>15)</sup>, 임재훈 외 1명<sup>16)</sup>이 있다. 김항인은 개인과 사회 모두를 중요시하는 관점이 사회적 구성주의이고 지식은 사회구성의 결과임을 말하였다. 그의 연구는 교과교육에 있어 지식의 고정에서 벗어나 유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진원은 구성주의를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누어 구조주의와 비교하였다. 더불어 지식 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료 중심 수업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그의 연구는 현대사회에 있어 학습자가 스스로 자료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응용하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에 맞는 교수·학습 모형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11) 김기홍, 「사회구성주의를 변호하며:사회와 자연의 사회적 구성과 자기준거성에 대하여」, 『사회와이론』 제32집, 2018, 101~143쪽.

12) 박승배,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제32집, 새한철학회, 363~380쪽.

13) 김항인, 「사회구성주의와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9집,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344~360쪽.

14) 서진원, 「교육방법으로서의 구성주의와 구조주의의 비교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 2009, 81~92쪽.

15) 윤영돈, 「사회구성주의에서 본 도덕교육의 인문치료적 접근」, 『초등도덕교육: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논문집』 제44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4, 241~266쪽.

16) 임재훈 외 1명, 「조작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구성의 의미와 과정」, 『수학교육학연구』 제8집 1권, 대한수학교육학회, 1998, 299~312쪽.

윤영돈은 인문치료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내러티브적 접근을 언급하며,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대화의 중요성과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중요 개념 및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나 치료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 교육에 적용·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임재훈 외 1명은 구성의 의미와 매커니즘에 관한 이해를 수학 교육학 영역에서 구성주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구성의 의미 분석을 통해 언어가 사고의 본질임을 파악하고 이를 수학 교과에 적용하여 한계점과 주의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 2) 비계에 관한 연구

비계는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내에서 학습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교수 전략이다. 따라서 비계와 더불어 근접발달영역에 관한 연구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비계와 근접발달영역의 실제적 활용에 관해 연구한 연구자는 곽춘옥<sup>17)</sup>, 김수현<sup>18)</sup>, 김철희<sup>19)</sup>, 이소현<sup>20)</sup>, 이정숙<sup>21)</sup>과 임성규<sup>22)</sup>가 있다. 곽춘옥은 문학 교수·학습에서의 변인은 텍스트, 학습자, 교사이며 그 중 효과적인 문학 교수·학습을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비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반응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사의 적절한 비계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수현은 비계와 근접발달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질문을 범주화시켰다. 실제 문학 자료를 수업 진행 순서와 질문 유형

17) 곽춘옥, 「문학 교수·학습의 변인에 대한 고찰 - 텍스트, 학습자, 교사 변인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2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161~189쪽.

18) 김수현, 「읽기 교수·학습을 위한 질문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9) 김철희, 「비계설정을 통한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0) 이소현, 「근접발달영역에 따른 소설 교수-학습 모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1) 이정숙, 「교사의 중재에 따른 쓰기 지식의 변환」, 『청람어문교육』 제2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85~134쪽.

22) 임성규, 「구성주의와 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1, 5~31쪽.

에 따라 구체적 예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철희는 비계설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쓰기 과제의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비계설정으로서의 쓰기 과제 구성 모형과 이를 적용한 교육적 대안으로는 개별화된 쓰기 교재를 제안하였다.

이소현은 학습자의 주체적 감상과 발달을 고려한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며 근접발달영역에 따른 소설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을 소설 작품에 적용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반면 실제 교과에 적용될 모습은 지도안 제시에만 그쳐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정숙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지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언어적 중재인 비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계를 크게 교사의 설명, 시범, 질문, 학생의 답변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어 살폈으며 교사의 적절한 설명이나 시범을 통해 학습자에게 지식이 이양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임성규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언어 기능이 신장되어야 하며 전략적 수업 모형으로 직접적·현시적·상보적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업 모형들은 과제 해결 과정이 교사에서 학습자에게로 전이된다. 그는 이러한 전이 과정을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에서의 비계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이정숙과 임성규의 연구는 보편적인 교사 중심의 교수법이 몇 가지 전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수·학습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비계와 근접발달영역의 활용은 물론 효과성까지 파악한 연구자는 송선희<sup>23)</sup>, 최옥화<sup>24)</sup>가 있다. 송선희는 근접발달영역의 정의에 입각하여 교수·학습 집단을 구성하고 비계를 활용하여 근접발달영역 내에서의 학습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최옥화는 비계설정으로써의 소집단 공동학습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소집단 공동학습을 국어과의 하위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23) 송선희,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효과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24) 최옥화,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을 통한 국어과 소집단 공동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나누어 지도안과 실제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성적 비교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밖에도 김재홍<sup>25)</sup>은 논설문 쓰기 지도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비계양상을 연구하였으며, 김현경<sup>26)</sup>은 문단 쓰기 수업 양상과 결과물 분석을 통한 수업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비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지현<sup>27)</sup>은 문학토의를 중심으로 한 문학교육의 대화주의적 맥락과 이를 돕는 비계를 설정하여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비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예시와 실제 수업 양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비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김항인의 교과 지식의 유동성과 서진원의 자료를 통한 지식의 구성 및 응용, 임재훈 외 1명의 언어의 성격에 동의한다.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학습자가 언어와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유동적인 교과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곽춘옥과 김수현의 연구를 확장하여, 학습 주체 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위한 학습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단순히 지도안을 제시하고 교수법 및 교수 전략을 고찰한 것에 그친 이소현, 이정숙과 임성규의 연구를 보완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의 <홍계월전>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홍계월전>의 교육적 가치를 새로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25) 김재홍, 「논설문 쓰기 수업에서의 교사의 비계설정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6) 김현경, 「문단 쓰기 교수·학습 양상 연구」, 『어문학교육』 제36집, 2008, 109~142쪽.

27) 남지현, 「대화주의에 기반한 문학토의 수업의 구조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학자인 비고츠키의 비계를 활용하여, 구성원 간의 합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홍계월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홍계월전>의 갈래인 영웅소설에 사회적 구성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의 객관성과 부합한다. 국어과의 문학은 “인간의 체험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행위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sup>28)</sup>이다. 즉 문학은 개인 또는 공동체, 사회의 언어·문화·역사 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영웅소설은 조선 시대의 신분 사회 붕괴 및 임병양란의 연이은 패배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극복과 의지(依支)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주인공인 영웅은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불안 속에서 민중을 구해줄 가상의 대리자이다. 영웅은 독자 개개인의 공감을 넘어서 대중의 동감(同感)을 얻은 자(者), 즉 창작 당시의 사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용납된 인물이다. 따라서 영웅은 민중의 합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얻은 인물이며, 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웅소설은 객관성을 띠는 갈래이다.

둘째, 합의의 개념을 통해 영웅소설의 창작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견지하였듯이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영웅소설 성취기준은 작품 창작 당시의 배경과 연관이 있으며, 문학은 사회의 언어·문화·역사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산물 중 하나인 영웅소설은 사회·문화를 내재하고 있으며, 그 요소를 학습하는 것이 영웅소설의 교육 목적이다. 때문에 영웅소설이 어떠한 면에서 민중의 합의를 얻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영웅소설의 창작 배경을 파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웅소설 중 <홍계월전>을 연구의 소재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화위남(女化爲男)을 통한 남성성(男性性)의 부여 및 상실이다. 여성 영웅소설에만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여화위남은 흔히 주인공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과 여성으로서의 삶 거부를 통한 여성성 상실 혹은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의미한다. 특히 <홍계월전>은 여성의식이 가장 고양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sup>29)</sup> 그 이유는 다른 여성 영웅소설에 비해 성별이 탄로 난 후에도 가

28) 교육부a, 앞의 책, 122쪽.

29) 본 연구에서 말하는 여성의식이란 주인공의 여성적 면모 혹은 남성의 사랑 쟁취를 뜻하지 않

정으로 돌아가 내조에 힘쓰기보다는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에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홍계월전>의 주인공이 남장(男裝)을 한 것을 남성성의 획득, 남장에서 벗어나 본래의 성(性)<sup>30)</sup>을 되찾은 것을 남성성의 상실, 여성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주인공의 불운 및 고난을 기준으로 하여 주인공 계월의 모습이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으로 나누어 나타난다.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영웅의 일대기에 따라 <홍계월전>을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을 공유하는 계월의 양성(兩性)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 문학의 영웅소설에서는 보편적으로 가문의 몰락과 국가적 재난과 같은 불운 및 고난이 나타난다. <홍계월전>에서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불운 및 고난이 두 차례 등장하며 이를 비롯한 내용적 구성 역시 비슷하다. 즉 영웅의 일대기라는 동일한 서사를 따라, ‘불운 및 고난’을 시작점으로 하여 두 개의 구성으로 나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으로 구분할

는다.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통해 나타나는 당시 여성들의 변화한 가치관 및 사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군담을 통해 나타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여성 본연의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당시 여성들의 가치관 및 사상이 드러난 작품이 여성의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여성 영웅소설 작품인 <김희경전>, <이대봉전>, <옥주호연>, <황장군전>, <이봉빈전>의 주인공들은 영웅적 활약을 한 뒤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박씨부인전>, <금방울전>, <신유복전>, <황부인전>의 주인공들은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남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웅적 활약을 한다. 이밖에 <홍계월전>, <방한립전>, <정수정전>, <이학사전>의 주인공들은 영웅적 면모를 보여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 그 지위를 유지한다. 그중 <방한립전>은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남성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당시 사회에서 권위를 갖고 있던 남성과의 온전한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성의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하던 당시 여성들의 생각과 달라 여성의식이 고양된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수정전>과 <이학사전>은 주인공이 남장한 사실을 밝힌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영웅소설의 보편적인 일대기처럼 영웅적 면모를 보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즉 <정수정전>과 <이학사전>은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아닌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성의식이 고양된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에 반해 <홍계월전>은 구성적 측면에서 주인공의 군담이 주를 이루며 마무리 역시 뛰어난 능력으로 쟁취한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또한 안순희는 <홍계월전>의 주인공 계월을 가문의 영달이나 남성을 위해 삶을 살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였으며 안순희,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박씨전>, <옥주호연>,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정병현 외 1명은 계월이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수단인 뛰어난 능력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정병현 외 1명,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12. 조은희는 계월이 능력으로 남성인 보국과 경쟁하여 승리를 거머쥐고 남녀평등, 여권신장을 이루어 진일보한 여성 영웅이라 하였다.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따라서 열두 개의 여성 영웅소설의 특징과 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홍계월전>이 여성의식이 가장 고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거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0) ‘성(性)’이란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동아출판 사서편집국, 『표준 국어 대사전 - 중』, 동아출판, 1999, 3445쪽 참고. 이러한 뜻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외면을 가진 자(者)를 남성, 여성의 외면을 가진 자(者)를 여성으로 보고자 한다.

수 있다.

셋째,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삶의 모습이 현대 사회의 학습자에게 본보기가 된다. <홍계월전>의 주인공 계월은 유교적 윤리인 효(孝)에 충실하기 위해 부모를 봉양(奉養)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유교적 윤리로 인해 아들과 딸은 달리 딸은 부모를 모실 수도, 제사를 지낼 수도 없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부모를 모실 능력과 자식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있으나 사회적 차별로 인해 행할 수 없었다. 계월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전장(戰場)에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극복하였다. 이밖에 부수적 인물들은 계월처럼 능동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을 뿐, 이들의 태도는 이미 기존 유교적 윤리와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즉 <홍계월전>은 영웅이 양성성(兩性性)을 띠어 여성 영웅소설에서만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여화위남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영웅소설의 보편적인 전개과정과 특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홍계월전>에 반영된 민중의 가치관 및 사상의 근대화는 학습자의 학습이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변화 및 발전을 꾀한다는 면에서 학습자가 등장인물의 진보성을 본받을 만하여 학습 가치가 있어 연구의 중심 소재로 적합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구성주의를 정의하여 사회적 구성주의의 핵심 개념이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상호작용'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지식, 수업 및 학습으로 나누어 교육적 관점 파악 및 교육적 활용 기준을 설정하는 기저가 된다. 그 후 <홍계월전>을 사회적 구성주의에 적용하기 위해 작품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홍계월전>의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작품 창작 당시의 배경과 문학작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사회학적 비평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비평 방법은 당시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합의를 통해 인정받은 민중의 가치관 및 사상이 작품에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평을 활용하여 추출한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를 학습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교수·학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비평 방법은 합의의 개념에서 작

품의 창작 배경 혹은 주인공 영웅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학습자가 작품과 현대와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바탕이 된다.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는 영웅소설의 보편적인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소설 구성의 3 요소인 사건, 인물, 배경과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로 나누어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한 학습 요소와 앞서 파악한 교육적 관점 및 활용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지식으로 규정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를 구체화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영웅소설을 적용한 7개의 성취기준 모두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핵심 개념인 ‘합의’와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홍계월전>에 적용되는 합의의 개념과 상호작용의 기준 및 방법에 유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에 대한 개념을 비고츠키의 이론과 관련지어 지식, 학습 및 수업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홍계월전>에서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홍계월전>을 여화위남, 불운 및 고난, 등장인물의 진보성을 기준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다른 영웅소설과의 구성적 특이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특이점은 <홍계월전>의 성격이자 작품 선정의 근거가 될 것이다.

IV장에서는 영웅소설의 일정한 구성적 틀 내에서 <홍계월전>의 작품을 분석하여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의 학습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학습 요소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건, 인물, 배경, 주제’를 삼고자 한다.

V장에서는 앞서 파악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구성주의 기준과 <홍계월전> 학습 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나누어 성취기준에 맞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적용한 고등학교의 영웅소설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학교수업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에 맞춰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II.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육적 관점 및 활용 기준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홍계월전>에 적용하여, 실제 고등학교 교육의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 개념을 활용하여 지식의 기준을 전제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 주체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비고츠키의 이론을 활용하여 교수 방법과 학습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간이 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일상적 수준에서 행위자들은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고 인지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적인 수준의 믿음이나 주장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조건이나 행위자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이와 같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출발은 사회를 구성하려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홀로 사회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믿음이나 주장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 및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동의 및 인정을 얻은 개인의 주장은 객관성을 갖춘 지식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이 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지식의 객관성은 “주관과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sup>32)</sup>가 아니다. “한 개인을 넘어선 사회 공동체가 옳다고 인정하는’ 또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정된’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sup>33)</sup> 즉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객관성’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합의는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합의와 상호작용은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31) 김기홍, 앞의 책, 105쪽 재인용.

32) 임재훈 외 1명, 앞의 책, 305쪽 재인용.

33) 임재훈 외 1명, 앞의 책, 305쪽 재인용.

## 1. 지식에 대한 관점

### 1) 지식의 기준

사회적 구성주의는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급진적 구성주의<sup>34)</sup>의 대안으로, ‘합의’의 개념에서 ‘객관성’을 획득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객관성은 어느 한 분야의 정점에 있는 학자들 또는 대다수의 공통된 주관적 합의이며, 그렇기에 충분히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지식을 의미한다.<sup>35)</sup>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객관성을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 기준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의 제도로 시행되는 공교육은 교육과정을 따라 행해진다. 또한 교육과정은 끊임없이 교과 교육을 혁신하며 국가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수정된다.<sup>36)</sup>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계획 및 실천하는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성격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과 목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학습 목표를 선정·조직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육전문가 대다수의 합의를 얻어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sup>37)</sup>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법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를 지닌다. 초·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예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이 초·중

34) 급진적 구성주의는 객관적 실재의 존재를 부정하며 객관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인애 외 8명, 앞의 책, 109쪽.

35) 강인애 외 8명, 앞의 책, 108~109쪽 참고.

36)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등 교과외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교육부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교육부, 2015, 참고.

37) 교육부c,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교육부, 2016, 3쪽 참고.

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법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sup>38)</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 전문가(학자)들이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교육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공유하여 의도적으로 일련의 계획을 세운다. 둘째, 법에 근거하여 모든 학교에서도 이를 따라 교육한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여,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이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 ‘지식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를 구체화한 교과서까지를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이며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으로 보고자 한다.

## 2) 지식의 구성과정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상호작용’은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의 중요한 본질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를 얻어 지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간과 사회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상 국가를 이루고 사는(정치적인) 동물이다. ……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임에 틀림없다.”<sup>39)</sup>라고 말하였다. 그의 정의<sup>40)</sup>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예부터 인식해 왔음을 시사(示唆)한다.

38) 교육부c, 앞의 책, 3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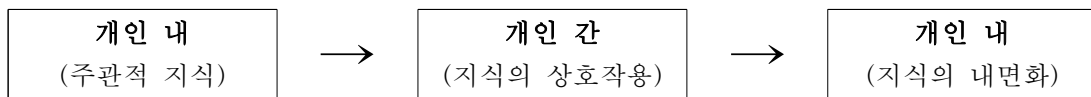
39) 윌리엄 데이빗 로스, 김진성 옮김, 『아리스토텔레스-그의 저술과 사상에 대한 총설』, 누넌, 2011, 301쪽.

40)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로 재구성되었다. 한상수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가 근본적인 명제라고 하였을 때, 인간은 국가를 형성하려는 본성(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성이 발현된 것이 국가라고 하였다.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성균관법학』, 제19권 1호, 535~538쪽 참고.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비고츠키 역시 인간의 지식은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구성되고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는 “어떠한 고등정신기능<sup>41)</sup>도 사회적 기능이기에 때문에 발달과정에서 외적 단계를 거친다. 우리가 하나의 과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외적이란 사회적임을 의미한다. 모든 고등정신기능은 외적이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내적 기능, 즉 진정한 정신기능으로 전이된다.”<sup>42)</sup>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정신기능은 ‘지식’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비고츠키는 이처럼 개인 내적인 주관적 지식을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하여 구성된 객관적 지식을 개인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내면화(內面化)’라고 표현하였다. 외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다. 또한 내적 기능은 고등정신기능으로서의 지식 획득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지식 구성 과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지식 구성과정



비고츠키는 학습자의 내면화, 즉 고등정신으로서의 지식 획득수단으로 ‘언어’를 중요시한다. 그는 “한편 기호는 심리적 조작의 대상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기호는 자신을 숙달시키려는 목표를 갖는 내적 활동의 수단으로서 내부 지향적이다.”<sup>43)</sup>라 말했다. 비고츠키가 말하는 심리적 수단인 기호의 종류와 속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41) 비고츠키에게 있어 고등정신기능(과정)의 발달은 인지능력 발달을 의미한다. 고등정신기능(과정)의 기원은 사회문화에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학습자를 둘러싼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가진다거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징으로는 자발적 통제, 의식적 실현, 문화적 발달노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강조가 있다. 김재춘 외 4명,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10, 123~126쪽 참고.

42) 유리 카르포프, 실천교육교사번역팀 옮김, 『교사와 부모를 위한 비고츠키 교육학-네오비고츠키 주의 아동발달이론』, 살림터, 2017, 32쪽 재인용.

43) 한순미, 『비고츠키와 교육(문화-역사적 접근)』, 교육과학사, 1999, 34쪽 재인용.



<표 1> 비고츠키의 기호(심리적 수단) 종류 및 속성

기호의 종류	기호의 속성
언어, 다양한 계산체계들, 기억술, 대수의 상징체계들, 예술 작품들, 쓰기, 도식·도표·지도, 모든 유형의 관습적인 기호 등	심리적 도구는 정신기능을 질적으로 변형시킨다.
	심리적 도구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다.

워치(Wertsch)는 비고츠키가 심리적 도구를 사회적이라고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심리적 도구가 사회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국가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수단은 언어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사회적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다. 개인의 의사소통 면에서 보았을 때, 대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국지적 사회 현상에 관심을 보이며 사용하는 심리적 도구이기 때문이다.<sup>44)</sup>

이와 같은 심리적 도구 중 하나인 언어에 대한 비고츠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언어는 자신의 내면적 숙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내면화를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며, 추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학습 주체 간에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관점에서도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내면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은 학습자로, 내면화는 학습 주체 간의 언어교류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언어교류는 언어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 주체 간 ‘대화’로 실현된다. 학습에 있어 대화의 소재는 본 연구에서 지식의 기준으로 삼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되며 학습 장소는 대화의 주된 장이 된다.

44) 한순미, 앞의 책, 34~36쪽 참고.

## 2. 수업 및 학습에 대한 관점

### 1) 교수·학습방법

비고츠키는 학습자의 인지발달을 위한 사회적 배경으로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활용의 체계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45)</sup>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인지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내면화를 도와야 한다. 이때 전제 조건은 교사가 학습자를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아가는 인식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는 지식을 합의의 개념으로 보고, 학습 주체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고츠키는 근접발달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는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학습자의 내면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을 학습 주체 간의 공유 및 협상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학습자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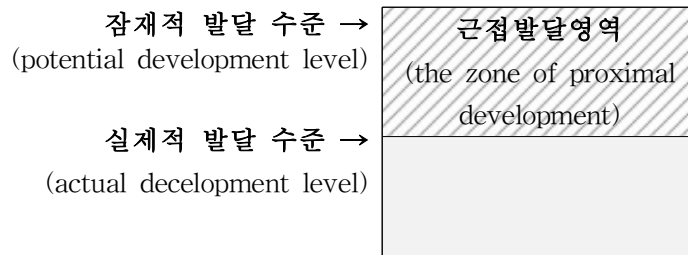
비고츠키는 “교수·학습이 언제나 발달에 선행한다. …… 학습과 발달은 두 개의 완전히 독립된 과정이거나 하나의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수·학습을 위한 심리적 기반의 발달은 학습을 앞서지 않으며 학습과의 연속적이고 내적인 연결 속에서 발달한다. 예컨대, 글쓰기에 필요한 심리적 토대가 준비되어서 글쓰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심리적 토대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글쓰기를 어느 연령에 가르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그에 필요한 것이 근접발달영역이라는 개념이다. 근접발달영역에는 ‘발달의 잠재력, 가능성’을 파악하는 의미가 포함된다.”<sup>46)</sup>고 말하였다. 근접발달영역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실제적 발달 수준은 학습자의 현

45) 김재춘 외 4명, 앞의 책, 130쪽 참고.

46)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앞의 책, 107쪽에서 재인용.

재 지적 발달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은 혼자서는 못하지만 유능한 타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sup>47)</sup>

<그림 2>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실제적 발달 수준의 학습자를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성인의 안내와 또래와의 협력이다. 이처럼 안내와 협력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 성장, 즉 지식 구성을 돕는 것을 비계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내와 협력을 통해 학습 주체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비계 개념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견지하였듯이 지식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객관성을 얻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중 지식 공유 및 협상을 위해 대화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지식, 즉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내용이 올바르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내와 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의 안내와 조력은 첫째, 문답식 교수법을 통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문답식 교수법은 교사가 발문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교수 방법이다. 교사는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사고(思考)를 장려하여, 학습자의 지식 구성 방향을 안내한다. 예를 들면 소설을 읽을 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건의 전개과정, 인물 간의 갈등 양상 등에 대한 지식을 교사가 발문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객관적 지식을 내면화하여 성취기준에 맞게 작품을 읽을 수 있다.

47) 김재춘 외 4명, 앞의 책, 160쪽 참고.

문답식 교수법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수 방법이다. 여기서의 대화는 객관주의 인식론에서의 수업<sup>48)</sup>처럼 교사가 학습자에게 네, 아니오 혹은 단일한 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발문을 하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방형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폭을 넓혀 작품을 다각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협력은 협동학습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 비고츠키는 또래 중에서도 ‘보다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이 학습자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들 간에 일어나는 인지적 갈등은 과제 수행을 위해 대화를 나누며 공동의 의견을 모아 상호주관성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인지발달로 촉진된다고 보았다.<sup>49)</sup> 이처럼 또래, 즉 학습자 간의 협력은 학습능력의 편차와는 상관없이 효과를 보인다. 학습능력이 미진한 학습자는 협력을 통해 수월하게 지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를 돕고 가르침으로써 지식을 내면화하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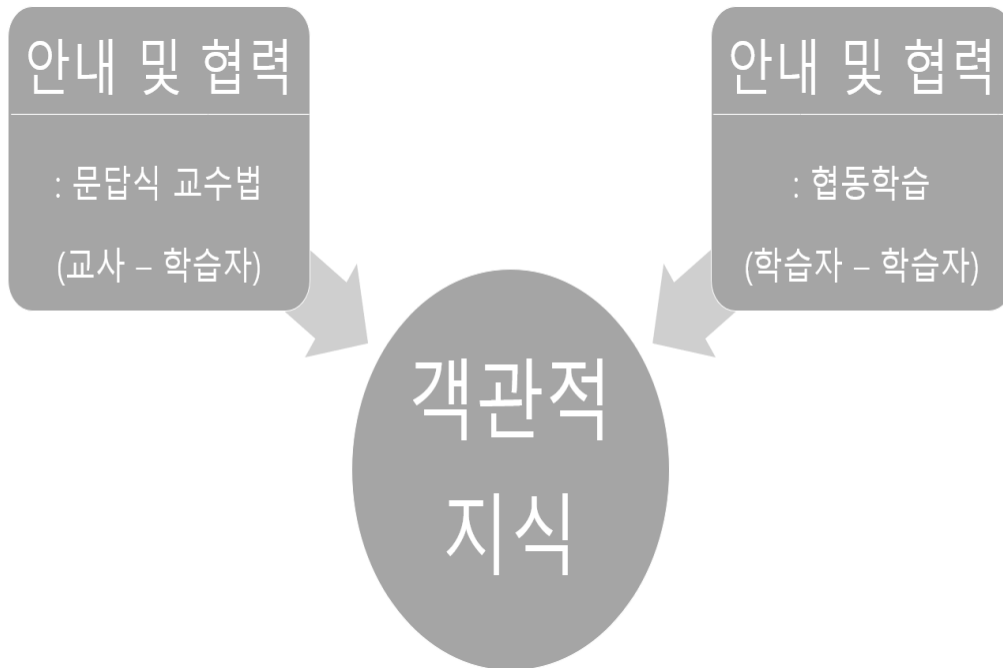
학습자가 교사의 안내나 시범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받아들일 때,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을 학습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해당 지식이 온전히 학습자의 것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전달한, 즉 객관적 지식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해당 지식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지식의 공유 및 합의를 통한 내면화는 학습자 간의 협동학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속해 있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및 지식을 교류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48) 객관주의 인식론의 강의식 수업(교사 중심)은 학습자를 단순한 청자로 만들어, 학습 주체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교수법이다. 또한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사가 전달해 준 지식을 “절대적 지식” 혹은 “절대적 진리” 강인애, 『우리 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2003, 16쪽 참고. 로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양한 시각으로의 해석이 가능함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은 학습 주체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답식 교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49) 한순미, 앞의 책, 135~136쪽 참고.

<그림 3>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방식



위의 <그림 3>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는 학교의 구성원이자 학습 주체인 교사 그리고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 주체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을 통한 지식 습득 방법으로, 안내와 협력을 통해 학습 주체 간의 언어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답식 교수법과 협동학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학습 환경

앞 절에서 견지한 문답식 교수법과 협동학습을 수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에서의 자유롭고 수용적인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객관주의의 수업에서처럼 학습자의 수동적 태도를 지향한다면 활발한 지식 구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때문에 학습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러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존중하며 포용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의 공유 및 합의를 통하여 학습 주체 간에 적극적이면서도 활발한 지식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는 학습자의 능동적 지식 구성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의 특성 및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몇 가지를 추려 정리하면 아래의 <표 2><sup>50)</sup>와 같다.

<표 2> 능동적 지식 구성 촉진을 위한 학습 환경 특성 및 원칙

연번	학자	학습 환경의 특성
①	윌슨 (Wilson)	학습자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장소
②		학습자들이 다양한 학습 도구와 정보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③	조나센 (Jonassen)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전략의 분석가 또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④	호네바인 (Honebein)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⑤		실제적이고 관련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한다.
⑥	브룩스 & 브룩스 (Brooks & Brooks)	세상은 많은 관점들이 존재하고 진리라는 것이 종종 해석 여하에 달려 있는 복잡한 곳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학생들과 나누어 가진다.
⑦		학습과 학습을 평가하는 과정은 적어도 피할 수 없는 번거로운 노력을 요하며, 쉽게 다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윌슨(Wilson)은 학습자가 함께 협동할 수 있으며, 지식 구성을 돕는 다양한 학습 도구와 정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지식의 협상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는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정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예로 문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과 영상·이미지 등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컴퓨터실 등이 있다. 교실은 학습자의 학교 내 주된 생활공간

50) 강인에 외 8명, 앞의 책, 72~75쪽.

이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또한 교수 시 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칠판과 PPT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익숙한 공간으로 문답식 교수법으로 교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sup>51)</sup> 이밖에도 학습자의 소집단 협동 활동 시 자리 배치, 의견 교류 등에 용이하여 학습 목표 도달에 수월할 것이라 본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실을 주된 학습 장소로 보고자 한다.

조나센(Jonassen)은 교사의 역할을 전략의 분석가, 코치로 보았다. 이는 주어진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도울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분석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데, 그 도움에는 학습 주체 간의 대화 장려, 교사의 발문 후 기다림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문제는 <표 2>의 ⑤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네바인(Honebine)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존중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브룩스와 브룩스(Brooks & Brooks)의 <표 2>의 ⑥과 연관이 있다. 브룩스와 브룩스 역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학습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진리라 여기는 지식은 우리가 존중하는 많은 관점 중 구성원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지식의 유동성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표 2>의 ⑦을 통해 평가는 학습을 하는 도중에 일어나야 하며 이러한 과정중심평가는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활한 문답식 교수법과 협동학습을 위해 교사가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학습자가 걱정과 불안, 편견 없이 여러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습 환경 마련은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도와 그들 지식의 내면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51) 가장 이상적인 구성주의적 수업방법은 주어진 수업상황에서 교사가 가장 자신 있게 전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수업방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행하는 방식 중 하나인 교실 내에서의 교수는 교사에게 익숙한 장소에서의 교수이다. 따라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신감은 곧 수업을 듣는 학습자에게도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파악된다. 강인애 외 8명, 앞의 책, 76쪽 참고.

### 3. 교육적 활용 기준

본 절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홍계월전>의 교육적 활용 기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홍계월전>의 갈래인 영웅소설과 사회적 구성주의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웅소설은 당시 사회 구성원인 민중의 동감과 합의를 얻어 창작되었다. 이를 이끄는 주인공 영웅은 사회 구성원의 인정을 받아 용납된 인물로, 당시 사회로부터 민중을 구해줄 가상의 인물이다. 합의와 인정을 받은 영웅의 모습과 영웅소설이라는 갈래는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의 객관성과 부합한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문답식 교수법과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홍계월전>을 교육한다면 문학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지식을 수월하게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과 당대 배경의 관련성을 통해 과거 사회 구성원인 민중의 생각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와 현대사회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와 전통 사이의 괴리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홍계월전> 교육을 위해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교육적 활용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앞서 파악하였던 교수·학습방법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비고츠키는 “교육에서 흥미의 문제는 학습자가 흥미 있게 배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흥미가 없으면 배움도 없다.”<sup>52)</sup>라고 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흥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흥미 유발을 적절히 해 주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일은 흥미에 기초한 학습은 즐겁게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기계적 혹은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학습보다 유의미하다고 하였다.<sup>53)</sup>

비고츠키의 말에 따라 교수·학습 시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은 수업의 도입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입부에서 느낀 흥미는 학습자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52) 유리 카르포프, 앞의 책, 52쪽에서 재인용.

53) 김성일, 「글 이해과정에서 흥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제8집, 한국심리학회, 273~301쪽.



이어져 원활한 지식 공유 및 협상을 통한 지식 구성을 가능하게 만든다.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갈래인 소설은 학습자의 읽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 학습하기도 전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흥미 유발의 실패는 학습의 실패와 연관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흥미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흥미성’<sup>54)</sup>으로 보고자 한다.

앞서 지식은 학습자의 경험과 사전 지식을 통해 구성되며, 그 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인 학습 주체 간의 상호작용, 즉 협력은 학습 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며, 교수·학습에서 학습자 간의 협력은 협동학습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비고츠키는 “아동의 고등 심리기능, 인간에게 특수한 고등한 특성은 원래 집단적 행동의 형태로서, 다른 사람과의 협력의 형태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며 후에라야만 그것들은 아동 자신의 내적 개인 기능이 된다.”<sup>55)</sup>고 하였다. 학습 주체 간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지식이 내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적 학습보다 협동학습에서 학업 성취도가 더 향상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과목, 과제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슬래빈(Slavin)의 실험 결과<sup>56)</sup>가 있다. 슬래빈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다시피

54) 우연경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업 성취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특정 과제 혹은 영역에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해당 내용에 대한 학습시간이 증가하며, 반복하여 참여하고 깊은 사고를 함에 따라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반면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이 되지 않아 흥미가 낮은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집중력 저하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학업 성취도가 낮다. 우연경, 「흥미 연구의 현재와 향후 연구 방향」, 『교육심리연구』 제4권 26집, 한국교육심리학회, 2012, 1180쪽 재인용. 19세기 초 독일의 철학자 헤르바르트(Herbert, 1806)는 흥미가 사물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인하게 하며, 의미있는 학습 유도 및 지식의 장기적 저장과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듀이(Dewey, 1913)와 제임스(James, 1890)와 같은 초기 심리학자들은 흥미가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며,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흥미가 발달한다고 하였다. 김성일, 앞의 책, 274쪽 재인용. 김성일 외 2명은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흥미나 태도 및 학업성취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정 학습내용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재미의 대상이나 활동에 유쾌한 감정과 태도를 보이고 의도적인 노력이나 주의를 덜 들이고도 더 많은 주의집중과 학습효과를 보이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습자가 특정 학습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가 혹은 그만두는가는 특정 교과에 대한 흥미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학업 관여 정도는 학업성취에 그대로 반영된다. 김성일 외 2명,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한국심리학회』 제1권 제14호, 한국심리학회지, 2008, 189쪽 재인용.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흥미성’은 인정된다.

55) 한순미, 앞의 책, 97쪽 재인용.

56) 슬래빈은 초등 학교와 중등 학교의 교실에서 방과후 시간에 수행된 비교연구 46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협동학습이 학업 성취에 있어 더 우월하다는 결과가 조사 연구 중 63%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개인이 책임을 다 했을 때 모두 전체가 보상을 받도록 실시한 거의 모든 연구(89%)에서 나타났다. 스펜서 케이건, 중앙기독교초등학교협동학습연구회 위

학습 주체 간의 협력학습은 학습 목표 도달에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을 통한 학습 목표 도달을 ‘협동성’<sup>57)</sup>이라고 보고자 한다.

비고츠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여야 한다고 하며 성인과 또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학습의 직접적 참여자인 ‘교사’로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습자에게 객관적 지식을 공유하여 주는 자(者)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객관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안내하며, 그 방법으로 시범, 해설, 발문 등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홍계월전>이라는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내 방법 중 발문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은 독자의 관점과 배경지식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다.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작품 감상 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발문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성’<sup>58)</sup>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 <홍계월전>의 이해와 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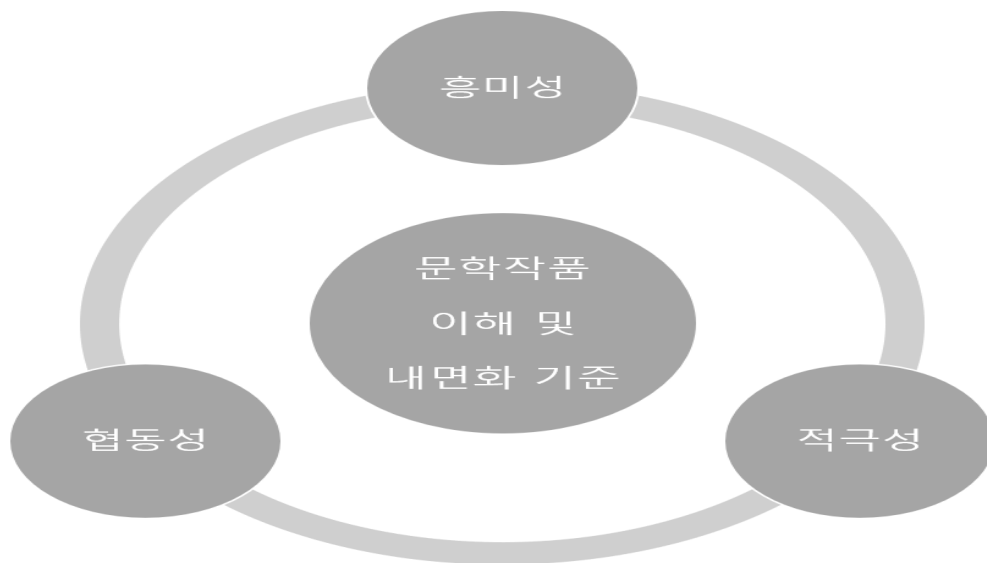
음, 『협동학습:열린 교육에 신바람을 일으킨 협동학습 실천 매뉴얼』, 디모데, 1999, 47쪽 참고.

57) 이경숙은 고등학교 지리 단원 수업을 통해 개별학습에 비해 협동학습의 학업성취가 높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이경숙, 「고등학교 지리수업에서 협동학습 전략이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0쪽 참고. 최미진자는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동료집단과의 사회적 수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졌음을 밝혔다. 최미진자, 「소집단 협동학습이 학습부진 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적수용에 미치는 사례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1~42쪽 참고.

58) 임철성 외 3명에 따르면 문답식 수업의 이점은 학습자와 교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첫째,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해를 명확하게 한다. 셋째, 오개념을 찾아낸다. 넷째,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한다. 다섯째,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기술을 발전시킨다. 여섯째, 선호하는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 일곱째, 다른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킨다. 여덟째, 지식을 확고히 한다. 아홉째, 사전 지식 위에 지식을 구성한다. 열째, 자신의 이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해와 적용의 폭을 높인다. 교사 측면에서는 첫째, 학습자의 교과 개념과 이해의 발전에 대한 시각을 얻는다. 둘째, 학습자가 발전하는 과정을 학부모에게 보여 줄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아는 것을 기반으로 지도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교수를 계획할 수 있다. 임철성 외 3명, 『교사화법 교육』, 집문당, 2004, 58쪽 재인용. 김현섭은 문답식 수업의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셋째,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질문은 학습자의 내적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김현섭,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한국협동센터, 2015, 19쪽. 서현정은 문학작품 교육 시 발문을 활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 및 감상의 폭을 넓혔다. 둘째, 학습자의 적극적인 감상 태도가 형성되었다. 서현정, 「문학교육을 위한 발문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를 돕는 기준으로 ‘흥미성’, ‘협동성’, ‘적극성’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4>는 앞서 살펴본 문학작품 <홍계월전> 이해 및 내면화 기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교수·학습 방안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학습자의 <홍계월전> 이해와 이를 통한 지식의 내면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사회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학작품 이해 및 내면화의 기준



<그림 4>의 세 가지 기준을 대입하여 교수·학습할 때 어떠한 활용이 가능할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등학교 교육내용 중 영웅소설에 적용된 성취기준, 즉 객관적 지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행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고등학교 교육내용 중 영웅소설을 활용한 것은 공통 국어의 문학 영역과 일반 선택 과목의 문학 교과서이다. 이 둘은 영웅소설을 한국 문학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소재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고등학교 공통 국어의 문학 영역과 일반 선택 과목 문학의 성취기준 중  
영웅소설이 적용된 항목<sup>59)</sup>

교육과정	영역	연 번	성취기준	적용 영웅소설
공통 교육과정	문학 <sup>60)</sup>	①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홍계월전
		②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선택 교육과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sup>61)</sup>	③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조용전
		④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유충렬전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sup>62)</sup>	⑥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형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임경업전 홍계월전
		⑦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홍계월전> 교수·학습 시 <표 3>의 성취기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③, ⑥, ⑦의 세 성취기준은 흥미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의 경우 <홍계월전>과 대중성이 강한 다른 작품의 관련성을 찾는 과정에서, ⑦의 경우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오늘날의 사회 상황과 비교<sup>63)</sup>하여 보는 것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59) 지학사-고등 국어-의 경우, 본문이 아닌 적용학습 중 하나로 일부만 수록되어 있어 이를 제외 하였으며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60) 교육부a, 앞의 책, 66쪽.

61) 교육부a, 앞의 책, 125~126쪽.

62) 교육부a, 앞의 책, 128쪽.

63) 교육부는 해당 성취기준은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오늘날의 사회 상황과 비교하거나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a, 앞의 책, 129쪽.

할 수 있다. ⑥의 경우 서사 갈래의 전개 양상의 계기를 제시하여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흥미 유발과 관련 깊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성취기준은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과거와 현대의 연결 고리를 찾아보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과거와 현대의 유사성을 추측한다는 면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 유의미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성취기준 ②, ④, ⑤는 협동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하자면, 먼저 ②의 내용과 같이 학습자가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모둠을 구성하여 ④와 ⑤와 같이 해석한 바를 서로 소통하게 하여 재구성 및 창작하도록 하여 학습자 간의 협력을 요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셋째, 성취기준 ①, ③, ⑥, ⑦은 적극성에 활용될 수 있다. 교육부의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해당 성취기준들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한국 문학 고유의 특성<sup>64)</sup>을 알아야 하며, 갈래의 구현 양상을 탐구하여야 한다. 또한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을 활용<sup>65)</sup>하여 작품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학작품 이해 및 감상 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 문학 고유의 특성 및 구현 양상과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학습 요소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객관적 지식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객관적 지식전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 이해·감상이 가능한 문답식 교수법을 활용한다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

64) 교육부a, 앞의 책, 66쪽.

65) 교육부a, 앞의 책, 125쪽.

### Ⅲ.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을 위한 <홍계월전> 성격 분석

본 장에서는 <홍계월전>의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을 위해 작품의 성격을 파악함과 동시에 작품 선정의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여화위남을 기준으로 하여 계월의 남성성의 획득과 상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영웅소설의 서사적 구성 중 불운 및 고난을 기점으로 하여 계월의 양성적(兩性的) 모습을 살펴보고,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진보적 태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먼저 <홍계월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웅소설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영웅소설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등장하는 영웅이 적대자와 싸우는 내용인 군담(軍談)이 주를 이루며, 판소리계 소설과 함께 큰 인기를 얻은 작품군이다.<sup>66)</sup> 이처럼 영웅적 면모를 가진 주인공을 내세운 영웅소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는 브레히트(Brecht)의 갈릴레오(Galileo)가 “불행은 영웅을 필요로 하는 토양이다.”<sup>67)</sup>라고 한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영웅소설의 양식은 18세기 무렵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는 임병양관에서의 패배와 신분제 붕괴, 경제의 근대화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연이은 전쟁의 패배와 피해는 조선 민중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의 근대화와 신분제의 붕괴는 정치적 기반 또한 흔들었다. 민중은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누군가를 갈망하였다. 이러한 바람은 작품에 반영되어 작품 속 영웅이 비현실적인 술법을 부려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한편 <홍계월전>의 이본은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결말 부분에서 부모와의 상봉이 이루어진다. 2유형은 부모와의 이별을 야기하고 시련의

66) 출간된 양으로 보았을 때, 영웅소설이 인기 있는 소설 양식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필사본만 남아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보급에 한계가 있어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다는 데 무리가 있다. 반면 방각본이나 활자본은 필사본을 활자화한 것이다. 때문에 출판된 작품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흥미 혹은 문예적 가치의 측면에서 우월했다 볼 수 있다. 영웅소설은 대부분의 작품이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출간되었다. 때문에 영웅소설이 조선조의 대표적 소설 양식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충분하다.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15쪽 참고.

67) 이는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의 작품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갈릴레오의 대사이다. 광정식, 『<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어문학』 제72집, 한국어문학회, 2001, 80쪽 재인용.

동기를 부여한 맹길을 죽임으로써 복수를 하는 단락까지 갖추었다. 3유형은 필사자에 의해 오초 양왕 자손들의 복수 과정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는 보국의 위상 회복과 광도사의 술법(도술적) 능력 부각을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한 이본군이다.<sup>68)</sup> 본 연구에서는 주인공 계월의 군담이 마무리되는 2유형을 참고로 하여 <홍계월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 이해 및 분석에 대한 편리성과 정확성을 위해 경성회동서관의 구활자본을 현대어로 번역한 정병헌 외 1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여화위남의 의미

여성 영웅소설의 여화위남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여화위남의 의미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 여성으로서의 삶 거부를 통한 여성성 상실, 살아가기 위한 방편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sup>69)</sup> 여성 영웅소설 중 특히 <홍계월전>은 여성의식의 정점에 있는 작품으로 연구된다. 그 이유는 다른 여성 영웅소설에 비해, 여성임이 탄로가 난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 내조에 힘쓰기보다는 영웅적 면모를 인정받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68)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큰사전65 호예-홍길동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111~112쪽 참고.

69) 강명혜는 남장을 여성 주인공의 목표성취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강명혜,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한국문학과예술』 제11집, 송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59~102쪽. 김종균은 남장이 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여성의 대외활동에 대한 은폐수단이자 남성 자존심에 대한 배려로 보았다. 김종균,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 양상-남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4권, 언문연구학회, 2007, 115~141쪽. 이윤경은 여주인공의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여주인공이 지닌 영웅성을 발휘하게 하는 장치를 남장이라 하였다.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제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263~292쪽. 임주인은 여성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남장을 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고유영역인 사회활동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임주인, 「<홍계월전>과 <박해받는 승리자>에 나타난 남장의 의미 비교분석」, 『동서비교문학저널』 제23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0, 232~252쪽. 임현아는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 남장을 하였으나, 이후 남장을 통해 남성성의 내면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존 여성의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았다. 임현아, 「<정수정전>에 나타난 성 역할 인식의 변화 고찰」, 『장서각』 제33집, 한국중앙연구원, 2015, 212~235쪽. 장시광은 남장이 여성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게 해주는 소설적 장치이며, 이는 남성을 모방하여 남성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라 하였다. 장시광, 「여성영웅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 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302~338쪽. 차옥덕은 남장이 여도(女道)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라고 하였다. 차옥덕, 「여도 거부를 통한 남성우월주의 극복-<홍계월전>, <정수정전>, <이형경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5집 2권, 1991, 292~252쪽.

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홍계월전>에서의 여화위남을 남성성의 부여로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남장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평국(계월)의 여화위남을 남성성의 부여로, 남장에서 탈피하여 본래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 계월로서 생활하는 것을 남성성의 상실로 파악하고자 한다.

<홍계월전>의 주인공 계월은 광도사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된 부모에 의해 남복(男服)을 입음으로써 여화위남하여 남자아이처럼 길러진다. 광도사의 예언에 의하면 계월은 일반적인 여성의 삶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와 헤어져 여러 고난을 겪으며 살게 될 운명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계월의 첫 남장은 타의에 의해 행해졌다. 하지만 계월이 부모와 이별하여 여공에게 구해질 때도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천자에게 들통이 나기 전까지도 그 사실을 함구하였다. 또한 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사실을 고백할 때, 부모가 죽었다 생각해 해골을 찾아 제를 지내기 위해 남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한 점에서 여공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여화위남은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월의 타의적·자의적 남장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이념 등에 연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시대는 유교 윤리에 의해 내외법(內外法), 여필종부(女必從夫) 등의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들이 만연한 사회였다. 생계와 직결되지 않는 이상 여성은 규중에 머물며 외간 남성과 얼굴이 마주칠 일이 없어야 하고, 어려서는 아버지를 커서는 남편 혹은 아들을 섬기며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성은 홀로 살아가기 힘들었으며 남성이 되어야지만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계월의 부모는 계월이 여성의 몸으로는 시련을 쉬이 감당하지 못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계월 스스로의 남장은 남성의 권리를 행하기 위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당시는 남성만이 사회적 구속과 편견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제사를 지낼 고유의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몸으로 어린 나이에 헤어진 부모의 소식을 듣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혹여 돌아가셨다 한들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남장을 하여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다.

계월이 남장을 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는 스스로 남성이 되고 싶어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사의 권리와 같이 사회로의 진출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본디 계월은 부모 만세 후 죽어서 다시 남성이 되어 공맹의 행실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여성의 모습으로는 『내훈(內訓)』,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 여성의 행실에 관한 규범, 정절 등에 관련된 것을 배울 뿐이다. 반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배워야 하는 공자와 맹자의 언행을 익히겠다는 것은 사회적 진출을 하고 싶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본래의 여성의 모습으로 산다면 사회에 진출할 수 없어, 죽어 다시 태어나서라도 남성이 되어 입신양명(立身揚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월의 마음은 보국과 결혼을 하기 전, 마지막 군례를 치른다는 핑계로 보국을 부리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결혼하는 것은 계월이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는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결혼 전 계월은 보국을 욕보여서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으며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함에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보국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계월은 타의적·자의적 남장을 하여 평국이란 이름으로 살면서 여성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남성의 모습으로 이루어냈다. 사회적 시각에서는 계월을 남성 평국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홍계월전>에서의 여화위남은 계월에게 남성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 후 계월은 남복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다 천자의 부름에 의해 전장으로 차출된다. 이때 계월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였다. 갑옷과 투구는 전쟁을 위한 복색을 갖춘 것일 뿐, 남장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계월은 여성의 모습으로 전쟁 중 보국의 목숨을 구해주고 적장 구덕지의 목을 베는 등 적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으며, 천기를 읽어 천자의 위태함을 파악해 구해냈다. 이처럼 계월이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적 위기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 혹은 이념이란 장애물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본래 계월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규중에서만 생활하였다. 다시 말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장애물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인물의 부재로 허물어져 계월에게 사회활동을 허용하였다. 때문에 계월은 여성의 모습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본인의 능력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웅적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 계월은 남장을 통해 부여되었던 남

성성이 상실된 상태로 전쟁에서 활약하고 승리함으로써 천자에게 인정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타의적·자의적 남장은 사회적 환경에 말미암은 것으로 계월에게 남성성을 부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본래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면적으로 남성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성성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계월전>에는 남성성의 부여로 인한 남성 영웅의 모습과 남성성의 상실로 인한 여성 영웅의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

## 2.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

영웅소설 연구는 김열규와 조동일의 서사구조에 의한 분석으로 일반화되었다. 김열규는 각 작품에서 추출한 주요 서사 단락의 공통분모를 근거로 개별 작품이 서로 친족 관계임을 밝혀내어, 조선조 소설 일대기 양식의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조동일은 우리 고유의 특성을 밝혀내어 영웅소설의 원론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sup>70)</sup> 본 절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영웅소설의 일반적 서사 순서와 <홍계월전>의 주인공 계월의 일대기를 비교·분석하여 불운 및 고난을 기준으로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으로 나누고자 한다.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출생배경에서부터 행복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그림 5> 영웅소설의 서사적 모형

70) 김현우, 「영웅소설의 변화와 대중성의 길」, 『한국학논집』 제27집, 2000, 158~159쪽 참고.



영웅소설의 서사적 구성은 <그림 5>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나 작품마다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를 서사적 구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영웅인 주인공의 집안은 고귀한 혈통이다. 주인공은 명문거족(名門巨族) 가문의 자식으로 그의 부친은 높은 벼슬을 지냈던 사람이거나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전 자처럼 부친이 과거에 관직을 종사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 이미 실세(失勢)하였기에 관직에서 박탈당하는 과정이 없다. 반면 현직(現職)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관직에서 박탈당하는 과정과 이를 야기한 세력과의 갈등이 나타난다. 둘째, 주인공은 범상치 않은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그 과정은 주인공의 부모가 꿈을 꿈으로써 실현된다.<sup>71)</sup> 득죄(得罪)한 천상의 존재 혹은 용자(龍子)·용녀(龍女) 등은 인간 세상에 내쳐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곳으로 자신을 인도하여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셋째, 주인공은 가족과의 이산, 국가적 전란 등으로 인한 불운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된다. 주인공의 불운은 가문의 몰락과 국가적 재난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대자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대자라 할 수 있으며, 이 둘이 융합하여 개인적 적대자가 후에 국가적 적대자가 되어 등장하기도 한다. 넷째, 주인공은 고난 속에서 허덕이다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 양육되고 술법과 무예를 배운다.<sup>72)</sup> 주인공의 양육자와 스승은 동일인 혹은 각각 다른 인물로 등장하며 몇 작품에서는 주인공 스스로 수학(修學)하기도

71) 서대석, 앞의 책, 48~51쪽 참고.

72) 서대석, 앞의 책, 53~59쪽 참고.

한다. 이러한 배움은 입신양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주인공은 사회에 나가 큰 공을 세우게 된다. 그 공을 세우는 도구는 주인공이 익힌 술법이거나 누군가의 도움이다. 여섯째, 주인공이 공을 세워 사회적으로 출세함으로써 주인공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다<sup>73)</sup>.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서사적 구성 중 ‘불운 및 고난’은 영웅소설에서 가장 중심적인 단락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외적으로는 영웅소설의 창작 배경인 불행과 관련이 있으며 작품 내적으로는 소설 구성의 3 요소 중 하나인 사건과 주인공의 투쟁적 성격 및 지향가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며, 갈등은 주인공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고난을 겪는 이유에 따라 투쟁적 성격이 정해지고 싸움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

<홍계월전>에서는 주인공의 불운 및 고난이 두 번 등장하며, 그 뒤의 구성은 여타의 영웅소설과 다를 바 없이 조력자의 구원과 입신양명으로 인한 부귀영화로 나타난다. <홍계월전>이라는 작품은 다음의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을 표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사 단락의 중심인 ‘불운 및 고난’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두 가지의 구성양상이 나타난다. 이때 첫 번째 구성은 남성 영웅의 모습을, 두 번째 구성에서는 여성 영웅의 모습을 보인다.<sup>74)</sup>

## 1) 남성 영웅

계월의 부모는 어렵게 얻은 딸아이가 혹여 단명할까 싶어 강호 땅의 광도사를 찾아가 계월의 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본 광도사는 계월이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질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다. 계월의 운명을 들은 부모는 이별을 대비하여 딸 아이에게 남복을 입혀 여화위남하였다.

계월은 부모(타인)의 의지로 남복을 입고 남장을 하여, 외양은 영락없는 아들의 모습이였다. 부모와의 이별 후에는 본인의 의지로 줄곧 남복을 입고 남자행세

73) 서대석, 앞의 책, 63~67쪽 참고.

74) 인용문은 단락과 기울임으로 구분하였으며, 단락별 특성이 드러나 있는 주요 부분은 진하게 표시하였다.

를 하였고 모두가 계월을 남성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계월은 사회적으로 ‘남성’의 모습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계월은 급제 후 나간 전장에서, 도사가 급히 건네주고 간 봉서를 활용하여 술법을 부려 승리한 후 명예롭게 귀환하여 능력을 인정받았다. 즉 남성의 모습으로 부모와의 이별이라는 불운 및 고난을 겪었다는 점과 조력자의 조력으로 살아나 신이한 도사의 도움으로 술법을 부려 입신양명을 하였다는 점, 명예롭게 귀환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점에서 영웅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 (1) 불운 및 고난

남성 영웅적 모습에서 주인공 계월의 불운 및 고난은 두 단계에 걸쳐 나타난다. 불운 및 고난의 근본적인 계기는 같으며 그로 인해 가족과 두 번의 헤어짐을 겪는다. 그중 친부(親父) 사랑과의 이별은 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반면, 친모(親母) 양씨 부인과의 이별은 타자(他者)에 의한 강제성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방절도사 장시량이 양주목사 주도와 협력하여 군사 십만을 거느리고 성주 구십여성을 항복받고 기주자사 장기덕을 베고 지금 **황성(皇城)**을 범하여 난을 일으킴이 더욱 심하여, 백성을 무수히 죽이고 가산을 노략하매 살기를 도모하여 피난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소이다.”<sup>75)</sup>

계월은 5세의 나이에 북방절도사인 장시량과 양주목사 주도의 난으로 인한 불운 및 고난을 경험한다. 이 난으로 인해 친구를 만나러 떠난 친부가 가족과 따로 피난길에 올라 첫 번째 이별을 하게 된다.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친모는 계월을 데리고 급히 떠나던 중 도적 맹길을 만나게 된다.

“저 부인을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비단으로 동여매고 계월을 자리에 싸서 강물에 넣으라. …… **맹길이 달려들어 계월의 옷을 칼로 베고 계월을 물에 던지니, 그 불쌍하고 민망한 일을 어찌 다 측량하리오.**<sup>76)</sup>

75)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55쪽.

76)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58쪽.

맹길은 계월의 친모의 미색(美色)에 반하여 취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계월을 강물에 넣어 죽이려 하였다. 때문에 계월은 친부에 이어 친모와도 이별하게 된다. 즉 국가 내의 반란은 계월이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계기이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월은 여전히 남장을 하여 여화위남의 상태였다. 계월의 남성적 외양은 <홍계월전>에서의 남성 영웅 모습의 기저가 된다.

## (2) 조력자에 의한 구원

계월은 강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며 친모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며 홀로 슬피 울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을 지나던 여공에 의해 구원받았다.

…… 이적에 무릉포에 사는 여공이라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서(西)에 가다가 강 위를 바라보니 어떤 아이가 자리에 싸여 떠내려가며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그곳에 이르러 배를 머무르고 자리를 건져보매 어린 아이라.<sup>77)</sup>

여공은 계월을 남자아이로 알고 친아들인 보국과 함께 양육하였고, 평국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비범한 두 아들의 수학을 곽도사에게 요청하여 둘은 곽도사에게 글과 용병지계(用兵之計), 각색 술법을 배웠다. 두 아이가 13세가 되던 해에 술법 풍운변화지술을 익히도록 하였으나 평국(계월)만이 이 술법을 익히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둘은 만과(萬科)에 참여하기 위해 황성으로 가 무과를 보고, 모두 장원하여 평국(계월)은 원수가 되었으며 보국은 부원수로 임명되었다. <홍계월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 남성인 보국은 일반인 사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평국(계월)에 비하면 평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보국과 평국(계월)의 능력 비교는 평국(계월)의 역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 (3) 술법 혹은 신이한 자의 도움으로 인한 입신양명(立身揚名)

77)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61쪽.

서달의 난으로 인해 국가적 어려움에 처하자 천자는 평국(계월)과 보국을 전장에 내보냈다. 도사는 천기를 읽어 평국(계월)이 위기에 처할 것을 알고 평국(계월)에게 봉서를 건네며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일일은 도사가 …… **봉서(封書)** 한 장을 평국을 주며 왈, “전장에 나가 만일 죽을 지경을 당하거든 이 봉서를 떼어 보라.” …… 78)

적장은 평국(계월)의 용맹함에 겁을 먹었으나 계교를 부려 평국(계월)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평국(계월)은 자신이 죽으면 더는 부모를 찾지 못할 것이며 오랑캐의 세상이 될 것이라 여겨 탄식하였다. 그러던 중 평국(계월)은 도사가 준 봉서를 생각해내 이를 활용하여 위험에서 벗어난다.

…… 문득 생각하고 선생이 주시던 **봉서**를 내어 떼어 보니 하였으며, “봉서 속에 부적을 넣었으니 천문동 화제를 만나거든 부적을 각 방향으로 날리고 용자(龍子)를 세 번 부르라.” …… “적장은 나의 중군을 해하지 말라. **천문동 화제에 죽은 평국이 이에 왔노라.**” …… 79)

계교로 인해 평국(계월)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적군은 보국에게 가 공격을 하고자 하였으나 평국(계월)의 등장에 벽파도(碧波渡)로 도망하였다. 평국(계월)은 적군을 쫓아 들어간 벽파도에서 친부모를 만난다. 그 후 적군은 본국으로 돌아가 평국(계월)은 큰 공을 세우게 된다.

#### (4) 명예로운 귀환 및 부귀영화

평국(계월)은 전쟁을 통해 이별했던 가족과 재회하고 자신의 술법과 스승 도사의 합작으로 승리를 거머쥐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국가적 적대자를 제거하여 영웅의 서사를 이루었다.

78)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71쪽.

79)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78쪽.

천자가 전좌하시고 원수로 좌승상 청주후를 봉하시고 보국으로 대사마 대장군 이부 시랑을 시키시고 그 남은 여러 장수들은 차례로 공을 쓰시고 …… 이적에 천자가 여러 신하를 돌아보아 왈, “평국과 보국은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간을 며칠 안으로 이루니 그 장함을 측량치 못할 러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설군 백 명씩 사급하시며, 또 온갖 비단과 보화를 수천 채를 상으로 내리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궁궐 안의 길이와 넓이가 이십 리가 넘는지라. 위의 거동이 천자와 다름 없더라. 80)

평국(계월)의 소식을 들은 천자는 평국(계월)을 좌승상 청주후로 봉할 뿐만 아니라 큰 궁궐과 금은보화를 주었다. 이밖에도 평국(계월)의 친부를 위공 봉작하고 친모를 봉비 직첩(職牒)하였으며, 양부모(養父母)인 여공 부부에게도 직첩을 내리는 등의 후한 처사를 하였다. 전쟁 승리로 천자에게 인정받아 명성, 금전적, 사회적 지위 등을 하사받는 것으로 평국(계월)의 남성 영웅의 최종 모습이 완성되었다.

## 2) 여성 영웅

평국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계월은 전장에 다녀온 뒤부터 몸이 좋지 않아 앓아누웠다. 이를 걱정한 천자는 친히 어의를 보내었고, 그 어의를 통해 평국(계월)이 여성임을 알게 되었다. 평국(계월)은 어의의 맥을 통해 천자가 자신이 여화위남하여 남자행세를 한 사실이 탄로 났을 것으로 생각해 상소하여 자신을 벌하여 달라 하였다. 그 후 천자의 중매로 계월은 보국과 결혼하였다.

계월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대로 여복(女服)을 입고 규중에서 생활하였다. 이는 계월이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처럼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여성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오왕과 초왕의 반란으로 인해 다시 전장에 나갈 때도 굳이 여화위남을 하지 않고 본래의 모습으로 출전한다. 이처럼 계월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가 계월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시부(媿父)가 된

80)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85~186쪽.



여공의 도움으로 천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술법을 부림으로써 천자의 목숨을 구해 능력을 인정받고 자손 대대로 높은 벼슬과 봉급을 받았다. 즉 여성의 모습으로 국가적 위기라는 불운 및 고난을 겪었다는 점과 술법을 부려 천자를 구해내 이름을 떨쳤다는 점,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의 일대기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 (1) 불운 및 고난

계월의 여성 영웅적 모습에서의 불운 및 고난은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며, 두 가지의 근본적 이유는 다르다.

…… “소녀의 마음은 평생을 홀로 늙어 부모 슬하에 있다가 부모 만세 후에 죽어 다시 남자되어 공맹의 행실을 배우고자 하였삽더니, …… .” 하며 눈물을 흘리고 남자 못됨을 한탄하더라.<sup>81)</sup>

계월은 이번 생에 남성이 되지 못하니 죽어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며, 남성이 되지 못함을 한탄한다. 본래 계월은 사회에 나가 입신양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남성이 아니란 이유로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박혁(博奕), 기국(碁局)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sup>82)</sup>

계월이 받은 사회적 제약이란, 아녀자는 집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으며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은 남성이 되어 이름을 떨치고 싶어 하는 계월에게 닥친 개인적 불운 및 고난이다.

“오왕과 초왕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코자 하옵나이다. ……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 없사와 상달하오니 옳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81)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89쪽.

82)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4쪽.

83)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3쪽.

반면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국가적 측면에서의 불운 및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장수만으로는 적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명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만일 이를 막지 못한다면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조력자에 의한 구원

천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계월이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장에 내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신하들은 비록 계월이 여성이기는 하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지위 또한 변함없기 때문에 계월이 전쟁에 나서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립되는 의견을 내세운 양측은 의논 끝에 계월을 전장에 보내기로 하여 급히 계월을 황성으로 불러들였다.

“경이 규중에 처한 고로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측량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 초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복지를 항복받고 남관을 해쳐 황성을 범코자 한다 하니, 경은 스스로 결정한 후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케 하라.” ……<sup>84)</sup>

천자와 신하의 조력은 계월을 규중생활에서 해방토록 하여 개인적 불운 및 고난을 해소해 주고, 전쟁 중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 사회(국가)적 불운 및 고난을 해소하는 발판이 된다. 또한 계월이 여성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상황은 그의 영웅적 면모를 인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홍계월전>에서 계월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계월의 여성적 외양은 여성 영웅의 기반이 된다.

천자가 가신 곳을 알지 못하고 망극함을 측량치 못하더니 문득 수컷구멍으로부터 한 노인이 나오다가 급히 들어가거늘 원수가 바빠 쫓아가며, “나는 도적이 아니라 대국 대원수 평국이니 놀라지 말고 나와 천자의 거처를 이르라.” …… 원수가 자세히

84)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4쪽.

보니 기주후 여공이라. …… “여기서 숨어 보니 한 신하가 천자를 업고 북문으로 도망하며 천태령을 넘어 가더니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으며 필연 위급하시리라.” ……<sup>85)</sup>

적군과 싸우던 중 계월은 천기를 읽어 천자가 위험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아챘다. 전장에서의 일은 중군장인 남편 보국에게 말기고 본인은 황성으로 돌아왔으나 궁궐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천자도 없어 방황하던 중 시부의 도움으로 천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천자와 신하, 시부의 조력은 계월을 원수로서 전쟁터로 보내고 천자가 있는 위치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국가적 재난을 타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소라 할 수 있다.

### (3) 술법 혹은 신이한 자의 도움으로 인한 입신양명(立身揚名)

계월은 시부의 말을 듣고 천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발견 당시 천자는 맹길을 비롯한 적군에 둘러싸여 항복하라는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로 인해 천자는 겁에 질려 계월이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를 내 항서를 쓰고자 하였다.

원수가 큰 소리로 불러 …… 살같이 달려갈새 원수의 준총마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이 탄 말 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늘, 맹길이 크게 놀라 몸을 돌려 장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범코자 하거늘, 원수가 크게 노하여 칼을 들어 맹길을 치니 두 팔이 나려지는지라. 즉시 사로잡고 또 좌충우돌하여 적진 장졸을 모두 죽여 없애니 흘러내린 피가 바다와 같고 쌓인 시체가 산과 같더라.<sup>86)</sup>

그 모습을 본 계월이 술법을 부려 맹길에게 칼을 한 번 휘두르자 맹길의 두 팔이 내려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적군을 모두 없앤다. 이로써 계월은 적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승리하고, 천자를 구해 다시 한번 이름을 날린다. 계월이 여성으로 참전하여 전공을 세우고, 평국이 아닌 계월 본연의 이름으로 명성을 떨쳤기에 사회적으로 영웅이라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85)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8~199쪽.

86)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9쪽.

#### (4) 명예로운 귀환 및 부귀영화

계월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를 묻는 천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 적군을 결박한다. 이후 계월은 전쟁에 출전하여 공(功)을 세움으로써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신하와 천자 사이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황성으로 돌아간다.

……적진 장졸을 날같이 결박하여 앞세우고 황성으로 행할새, 원수의 말은 천자를 피시키고 맹길이 났던 말은 원수가 타고 행군 북을 맹길의 등에 지우고 시신(侍臣)으로 북을 울리며 만세를 부르고 호호탕탕(浩浩蕩蕩)히 환궁하시더라. 이때 천자가 말 위에서 용포 소매를 날려 춤추시며 즐겨하시니, 여러 신하들과 원수도 일시에 팔을 들고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고 즐기며 천태령으로 넘어오니, ……<sup>87)</sup>

적군의 장수에게 북을 지게 하고 만세를 부르는 등의 기세 넘치는 모습은 전쟁 승리로 인한 계월의 명예로운 귀환을 뜻한다. 더불어 신하들뿐만 아니라 천자까지도 성별과 상관없이 계월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여 즐기는 모습은 그의 영웅적 모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며, 여성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적에 계월의 자손이 대대로 공후작록을 누리고 만세(萬世)에 이르기까지 천지무궁(天地無窮)하니, 이런 고로 장하고 기이한 일이 고금에 또 있으리오.<sup>88)</sup>

계월의 자손은 삼남 일녀로 장자는 오국 태자를, 차자는 초국 태자를, 삼자는 공문거족에 장가를 들어 사랑 베풀을 하였다. 이처럼 계월의 대를 지나서도 입신양명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모습이 드러난다.

본 절에서는 영웅소설의 서사적 모형에 빗대어 <홍계월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홍계월전>의 서사적 구성에서는 고귀한 혈통에서부터 비범한 탄생까지의 과정에서 남성·여성 영웅 모두 공통적인 서사 단락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인 불안 및 고난에서부터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구조화하여 보면, <표

87)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200쪽.

88)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211쪽.

4>와 같다.

<표 4> 영웅소설의 서사적 모형에 따른 <홍계월전>의 서사구조

남성 영웅	영웅소설의 서사적 모형	여성 영웅
명문거족 집안의 자손이다.	고귀한 혈통	명문거족 집안의 자손이다.
득죄한 상제의 시녀가 등장하는 꿈을 꾸고 난 뒤 회임하여 탄생하였다.	비범한 탄생	득죄한 상제의 시녀가 등장하는 꿈을 꾸고 난 뒤 회임하여 탄생하였다.
북방절도사 장시랑의 난과 맹길로 인해 친부모와 헤어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불운 및 고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함을 한탄하였으며, 오왕과 초양의 반란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다.
여공에 의해 목숨을 건진다.	조력자에 의한 구원	천자와 신하들에 의해 전장에 보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공의 도움으로 위기에 처한 천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곽도사의 봉서를 활용하여 술법을 부림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난 후, 적군의 항복을 받고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술법 혹은 신이한 자의 도움으로 인한 입신양명	술법을 부림으로써 천자를 구해 이름을 널리 알린다.
좌승상이란 벼슬과 궁궐, 금은 보화를 받음으로써 부귀영화를 얻었다.	명예로운 귀환 및 부귀영화	천자, 신하들과 춤추며 귀환하였고 대대로 공후작록을 누렸다.

### 3. 진보적 본보기

<홍계월전> 창작 당시에는 유교적 윤리에 따라 남성은 사회의 일을, 여성은

가정의 일을 하였다. 반면 <홍계월전>의 등장인물 계월, 천자, 계월의 친모는 유교적 이념과는 상반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계월이다. 남장한 계월은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에 진출한다. 계월의 능력은 남성인 보국보다 우월함을 인정받아 그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또한 계월은 부여된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하여 전장에서 영웅적 면모를 발휘하였다. 계월이 여성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계월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계월은 2차로 전쟁에 참여하여 영웅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천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계월의 양성적(兩性的) 영웅의 모습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당시의 사회상과 반대되는 것으로 계월의 진취적 성격을 보여준다.

천자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계월을 규중에 옥죄는다. 그러나 후에는 계월의 개인적·국가적 위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천자는 계월이 규중에 홀로 늙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하였다. 이와 같은 천자의 생각은 당시 만연해 있던 유교적 윤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유교적 윤리의식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계월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제약이었다. 그 제약으로 인해 계월은 결혼 후 천자가 전쟁참여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규중에만 머물며 사회활동은 일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천자이다. 그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은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여 모든 갈등의 원인이자 민중의 바람을 이루어주었다. 이처럼 민중이 원하는 사회에 반(反)하는 바를 천자가 들어주는 것에서 천자의 진보적 성향이 드러난다. 국가를 유지하는 기반인 유교보다 민중의 갈망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계월의 친모는 남편 사랑과 헤어지자 죽으려 하였으나 이내 정신을 붙잡고 오른 피난 길에서 맹길을 만나 위험에 처한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월을 구하고자 입으로 계월의 옷을 물어 놓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친모의 모습은 유교에서 장려하는 수동적 여인의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친모의 적극적 태도는 후에 남편을 찾으러 나서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꿈에 나타난 중의 말만 믿고 남편을 찾고자 바로 떠나는 친모의 실행력과 결단력은 어느 남성 못지않다. 친모의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바라는 여성상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남성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처럼 유교

에서 남성적 모습으로 추구하는 진취적 성격을 보이는 계월 친모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진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친모의 시비(侍婢) 양운은 친모를 곁에서 모시며 함께 삶을 개척하고, 계월의 친부를 찾기 위해 벽과도에 먼저 입도(入島)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또한 춘량은 계월의 친모와 시비가 맹길에게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홍계월전>은 주인공 계월을 비롯한 부수적 인물들도 삶에 있어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가치관 및 사상의 근대화는 학습자에게 진보적 본보기가 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계월의 여화위남, 계월의 남성·여성 영웅적 모습, 등장인물을 통한 진보적 본보기 파악을 통해 <홍계월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홍계월전>의 성격은 합의의 개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와도 연관이 있다. 계월의 여화위남은 작품 속 사회 구성원이 계월을 남성으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이다. 즉 구성원 모두가 계월을 남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와 일치한다.

영웅의 일대기 중 불운 및 고난을 기점으로 한 계월의 남성·여성 영웅적 모습은 서사 구조 측면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와 연관이 있다. 영웅소설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근원설화의 서사구조와 유사한 일정한 틀을 따른다. 등장인물의 진보적 성격은 민중의 가치관 및 사상이 근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이 또한 합의를 얻어 작품 속 인물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홍계월전>의 성격은 작품 선정의 근거이자 <홍계월전>의 교육적 가치 재발견의 기틀이 된다.

하지만 <홍계월전>은 고전소설인 만큼 당대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 내용상 전통적 이념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학습자가 전통이념과의 마찰이 생겨 작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식을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전통적 이념과 현대적 이념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수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으로 <홍계월전>을 교수·학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IV. <홍계월전>의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학습 요소

본 장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홍계월전>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실제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홍계월전>을 소설 구성의 3 요소인 ‘사건, 인물, 배경’과 ‘주제’ 네 가지에 맞추어 추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고등학교 교육 내용 중 영웅소설이 적용된 성취기준과 관련된 문학비평 관점을 파악할 것이다. 둘째, 해당 문학비평 관점과 사회적 구성주의의 연관성을 찾을 것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영웅소설의 공통 구조를 중심으로 <홍계월전>을 사건, 인물, 배경, 주제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파악된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는 영웅소설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 내용 중 영웅소설이 적용된 모든 성취기준을 아우른다. 따라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을 적용하여 영웅소설을 교수·학습을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영웅소설에 적용된 성취기준은 작품을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취지(趣旨)로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홍계월전>을 사회·문화 등 구조적 배경이 문학을 낳는다고 보는 사회학적 비평<sup>89)</sup> 관점에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학적 비평 방법은 다양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sup>90)</sup> 속에서 작품이 생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학적 비평 방법으로서의 <홍계월전> 분석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 인정받아 창작되고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때문에 사회학적 비평의 시각으로 <홍계월전>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를 밝히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 1. 사건

89) 유창근, 『문학비평연구』, 태영출판사, 2008, 96쪽.

90) 교육부a, 앞의 책, 122쪽.



영웅소설에서 사건은 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여 평면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건 전개는 갈등으로, 갈등 해결을 원동력으로 삼아 이야기가 지속된다. 따라서 소설 구성의 3 요소 중 하나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주인공인 영웅의 일대기와 그를 중심으로 한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웅의 일대기

영웅소설은 영웅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러한 영웅소설의 서사적 구성은 설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 증거로 소설의 발달과정에서 신화 속 신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영웅화(英雄化)가 영웅소설의 구조와 비슷한 틀을 보인다는 것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5><sup>91)</sup>와 같다.

<표 5> 신화와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비교

연번	신화	연번	영웅소설
①	고귀한 혈통	㉠	고귀한 혈통
②	비정상적인 잉태	㉡	어려서 고난
③	생래적인 탁월한 능력	㉢	구원자를 만나 영웅적 능력 획득
④	어려서 기아, 죽을 고비	㉣	다시 고난을 겪음
⑤	양육자에 의해 구출	㉤	탁월한 능력으로 고난 극복
⑥	자라서 위기	㉥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
⑦	투쟁에서 극복한 후 승리	㉦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천

위의 표와 같이 신화와 영웅소설은 그 구성에서 일정한 형식을 보인다. 신화의 ①~④, 영웅소설의 ㉠~㉣은 주인공의 탄생에 속하며 신화의 ⑤~⑥과 영웅소설의 ㉤~㉥은 고난에 속한다. 신화의 ⑦과 영웅소설의 ㉦~㉧은 고난 극복과 행복한 결말에 해당한다. 특히 신화의 ③과 영웅소설의 ㉤은 능력의 출처로 구별된

91)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서, 2004, 21~22쪽 참고.

다. 신화의 경우 주인공은 본래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나 영웅소설은 구원자를 만나 그의 밑에서 수확함으로써 능력을 획득한다. 이는 주인공의 뛰어난 역량이 생득(生得)이나 습득(習得)이냐의 차이로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는 점차 변모하여 주인공이 입신양명하는 방법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 예로 첫째는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의 신적인 성격이 강해 별다른 수확 과정 없이 양육자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둘째는 창작 당시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불운 및 고난이라는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한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고, 셋째는 이 두 과정이 융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영웅소설에서 영웅이 천상의 존재가 적강하는 꿈을 꾸고 난 뒤 잉태되어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것은 신화의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영웅은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법한 일들을 쉽게 해낸다. 또한 그가 당연히 죽었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거나 용서받을 일이 아니었음에도 당연시되어 문제 삼지 않는다. 이처럼 신격화된 영웅은 천상 존재의 적강이기에 그가 가진 비현실적인 힘을 옹호하여 활약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는 영웅소설의 서사 구성에서 두드러지는 위의 두 가지 특징에 집중하여 <홍계월전>의 일대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I장에서 보였던 <그림 5>의 영웅소설의 서사적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영웅소설의 첫 번째 특징은 고귀한 혈통이다. 계월의 집안은 고귀한 명문거족이며 그의 아버지는 이부시랑이란 벼슬을 지냈다. 둘째, 비범한 탄생이다. 계월은 상제께 득죄하여 내려온 시녀의 꿈을 꾸고 난 뒤 태어났다. 그 후 선녀는 계월이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내려와 계월을 씻긴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을 하였다. 오 년 뒤 장시랑의 난으로 인해 계월은 친부와 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친모가 자결하려던 찰나 계월을 씻겨주었던 선녀가 등장해 능파곡(凌波曲)<sup>92)</sup>을 부르며 배를 저어 계월과 친모, 시비 양윤을 구해주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계월은 지상에 환생한 선녀이며 계월을 도운 선녀는 용녀임을 알 수 있다. 계월을 도운 선녀가 용녀라는 것은 계월도 그와 같은 신분인 용녀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월이 용녀라는 또 다른 증거는 계월이 광도사가 준 봉서를 활

92) 당나라 악곡으로 현종이 용녀(龍女)를 위하여 지은 곡조이다. 정병현 외 1명, 앞의 책, 213쪽 참고.

용하고자 부적을 사방으로 날리며 ‘용자(龍子)’를 세 번 외쳐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에 있다. 이때의 계월은 남장을 하고 있었다. 앞서 여화위남의 의미에서 남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남성인 상태라 파악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계월은 남성이었기에 ‘용자’의 부적을 쓸 수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생 과정을 통해 계월이 본래 천상신분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인계(人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신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다. 그 예로 계월이 맹길에 의해 물에 던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살아남은 것과 여성임이 들키지 않은 것, 벌을 받던 친부를 천자의 동의 없이 유배지에서 모시고 나온 것 등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월이 자리에 싸여 맹길에 의해 강물에 넣어졌을 때의 나이는 다섯 살이었다. 다섯 살에 물 위에서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나 계월은 살아남았다. 계월이 물과 가까운 용녀이기 때문이다. 신화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형태 이전으로 되돌아감, 완전한 재생, 새로운 탄생으로 역행”을 의미한다.<sup>93)</sup> <홍계월전>에서의 물은 새로 탄생하여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예로 물에 빠지기 전의 계월은 타의적으로 남장을 한 것이지만, 물에 빠진 이후의 계월은 남장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로 인해 자의적으로 남자행세를 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계월이 남장을 하는 것은 남성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것과 대치시킬 수 있다. 또한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후, 그와 함께 살면서도 본래의 성(性)이 들통나지 않았다. 본래 다섯 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계월을 옆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은 계월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월은 여성임이 드러나기는커녕 그 누구도 계월이 남성이라는 것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계월이 용자이자 용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계월 본연의 신분은 신적인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의 말과 행동에는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계월은 그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여성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기 쉬우며, 신 개인의 고유한 공간을 일반인이 침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월의 출신은 양부(養父)인 여공과 그의 가족, 도사를 비롯한 외부인에게 계월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

93) 이명재 외 1명, 『문학비평의 이해와 활용』, 경진, 2017, 213~214쪽 참고.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계월은 서달의 난을 제압하고 난 뒤 만난 친 부모를 모시고 옥문관으로 돌아왔다. 이때 계월의 친부는 죄를 지어 벽파도에 유배 보내진 처지였기 때문에 천자의 허락 없이 유배지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계월은 친부를 자신의 뜻에 따라 모셨으며, 이에 의문을 표하거나 반발하는 자가 없었다. 천자 역시 계월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별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며 상을 내렸다. 이러한 점에서도 계월이 신적인 존재인 용자이자 용녀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묵과·용인되었음이 나타난다.

셋째, 불운 및 고난이다. 계월은 장시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가족과 떨어져있던 계월의 친부와 계월과 함께 있던 친모는 각자 피난길에 올랐다. 때문에 계월은 친부와의 이별을 먼저 겪었으며, 후에 맹길에 의해 물에 잠겨 목숨의 위협을 받고 친모와 헤어졌다. 넷째, 조력자에 의한 구원이다. 양부이자 시부인 여공은 우연히 길을 지나던 중 계월을 발견해 목숨을 구해준다. 다섯째, 술법 혹은 신이한 자의 도움으로 인한 구원이다. 월호산 광도사의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고, 훗날 그에게서 받은 봉서와 술법을 활용하여 목숨을 구해 전쟁에서 승리한다. 계월의 곁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구원자 여공과 입신양명의 길을 마련해주는 조력자 광도사가 있다. 계월은 천상 존재의 적강이지만 영웅적 역량이 부족하여 양육자 여공 외에도 광도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또한 계월의 불운 및 고난은 난(亂)과 도적이 의한 것으로 당시의 국가적 상황을 추측하게 한다. 견지하였듯이 조선 후기는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혼란했던 시기였다. 그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였으며 먹고 살기 힘든 민중이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여섯째, 불운 및 고난을 극복한 영웅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신화와 영웅소설의 서사적 구성의 상관관계는 영웅소설이 설화를 모티브로 한 것에 있다. 즉 영웅소설의 근원은 설화이다. 영웅을 신격화하여주는 대표적 작품으로 국조신화(國祖神話)인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계모형 설화, 난생설화, 탈갑(변신) 모티브 등이 있으며 그 중 <홍계월전>에서는 모계가 수신(水神) 출신인 국조신화와 여화위남하는 제주도의 <세경본풀이>가 있다. 서대석에 따르면 주몽의 외가인 화백, 혁거세의 부인인 알영은 수신이며, 수로왕비인 허왕후도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점에서 역시 수신

적(水神的)인 면모를 보인다고 하였다.<sup>94)</sup> 세월은 천상적 존재임과 동시에 용자이자 용녀로 수신적인 면모 또한 갖추고 있다. 또한 <세경본풀이>는 세경신(농경신)의 유래담으로 문도령과 자청비, 정수남은 각각 상세경과 중세경, 하세경을 맡으며 문도령과 자청비의 연애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sup>95)</sup> 주인공 자청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보고 반해, 문도령과 함께하기 위해 남장을 하여 자청비의 남동생으로 속여 3년 동안 같이 글공부를 하며 지낸다. 세월과 자청비의 남장의 계기는 다르지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남장을 하여 모습을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다.

## 2) 갈등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뉜다. 외적 갈등은 다시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갈등은 주인공에게 주어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주인공과의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면 갈등 역시 소멸하여 소설이 마무리된다. 그만큼 갈등은 소설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웅소설은 적대자로 등장하는 인물과의 외적 갈등이 주로 등장한다.<sup>96)</sup>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홍계월전>의 주인공 세월 역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적대자와의 외적 갈등, 즉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겪는다. 또한 사회 및 운명과의 갈등 양상도 드러나 외적 갈등의 하위분류 세 가지와 모두 관련이 있다.

<홍계월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갈등 양상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다. 세월

94) 서대석, 앞의 책, 52쪽 참고.

95)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236쪽 참고.

96)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보편적으로 개인과의 외적 갈등을 겪는다. 그 예로 <금방울전>의 해룡과 금룡은 천달과 외적 갈등이 있으며, <이대봉전>의 이대봉과 장애황은 왕희와 갈등을 겪는다. <곽해룡전>에서는 해룡과 간신(왕윤정과 사도 최운경, 황문시랑 조사원)이, <장경전>에서는 장경과 남이·남만왕, 말갈과 홀육과의 갈등이 나타난다. <조웅전>은 조웅과 간신(이두병)이, <유문성전>은 유문성, 이춘영과 달목의 갈등이 있다. <소대성전>에서는 소대성이 가정적 측면에서 장모(丈母)·그의 아들들과 갈등을, 사회적 측면에서 북홍노, 서선우와 갈등을 겪는다. 또한 <장풍운전>에서는 장풍운이 계모, 서번, 진번과 갈등하며 <장백전>에서는 장백과 주원장이, <현수문전>에서는 현수문과 후처 방씨, 남만·북토·석상왕, 황천 조길과 갈등을 보인다. 이밖에도 <황운전>에서는 황운, 설연과 간신(진권), 형왕(엄평)이 갈등하며 <김진옥전>에선 김진옥이 남선우와 무양공주와 갈등을, <장국진전>에서는 장국진과 백원도사, 달마왕과의 갈등이 나타난다.

은 남편인 보국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했던 맹길과 갈등을 겪는다. 보국은 계월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인물이다. 그 예로 서달의 난으로 인한 전쟁 중 계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국은 공을 세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를 계월이 구한다. 또한 오왕과 초왕의 난으로 인한 전쟁이 끝난 뒤 천자의 부탁으로 계월은 자신을 적장으로 오해하는 보국과 겨루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보국이 계월을 찾으며 자신을 구해주길 바란다. 이 밖에도 도사에게 수학할 때 계월이 삼삭 만에 배운 것을 보국은 일 년을 배워도 익히지 못하였다는 점, 과거 날 계월이 보국보다 먼저 답안을 쓰고 나왔으며 그 결과 계월과 보국은 한림학사와 부제후가 되었다는 점, 전쟁에서도 계월은 대원수, 보국은 중원수로 출전하였다는 점 등에서 둘의 능력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둘의 능력 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보국은 계월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숙이지 않는 것이 불만이였다. 그에 반해 계월은 본래 결혼 생각이 없었으며,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보국을 지아비로 섬기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의 차이는 계월과 보국의 지속적인 마찰을 야기시켰다. 이 둘의 갈등은 결혼 전 계월이 보국을 욕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오왕과 초왕의 난을 제압하기까지에 걸쳐 드러난다. 구체적인 예로 보국이 아버지에게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오리까.”<sup>97)</sup>라 말하며 분함을 터뜨리는 것과 계월이 전장에서 보국을 구하며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로다 하고 나를 업수이 여기더니 이제도 그리할까.”<sup>98)</sup>라 말하며 조롱한 것을 들 수 있다. 계월과 보국의 갈등은 보국이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고 나서야 끝난다. 갈등 해소의 이유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계월이 천자에게 능력을 인정을 받은 것에 있다. 여기서 계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당시 사회체도로 인한 차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로 확대하여 볼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간의 갈등의 다른 예인 계월과 맹길의 갈등은 계월이 다섯 살일 때부터 시작된다. 장시랑의 난을 피해 피난을 가던 계월 모녀와 만난 맹길은 계월의 친

97)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5쪽.

98)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6쪽.

모인 부인 양씨의 미색에 반해 그녀를 취하고자 계월을 물에 빠뜨린다. 이렇게 시작된 개인적인 악연은 후에 오왕과 초왕의 난 때 맹길의 초왕 쪽 선봉장으로 출전해 천자를 겁박함으로써 영웅 개인의 적대자가 국가적 적대자로 변모하여 개인과 국가의 적대자가 동일시되는 현상을 보인다. 계월은 개인의 적대자였던 맹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맹길은 국가적 적대자가 되어 계월의 앞에 나타나, 갈등의 지속적 양상을 보인다. 계월과 맹길의 갈등은 계월이 맹길로부터 천자를 구하고 그를 벌함으로써 끝이 난다. 계월이 “저 도적은 소신의 불공대천지원수(不共戴天之怨讐)로소이다.”<sup>99)</sup>라고 말할 만큼 큰 원한을 가진 자가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갈등이 해소된 것이다. 이는 개인적 적대자이자 국가적 적대자인 맹길이 죽음으로써 갈등의 대상과 이유가 소멸한 것이다. 이때의 국가적 적대자란 당시 수많은 외침으로 인한 나라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과 운명의 갈등 모습으로는 계월이 남성이 되어 제사를 지내고 입신양명 하길 원하였으나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예로 들 수 있다. 여화위남의 의미에서 파악했듯이 계월은 타의적·자의적 남장을 통해 부모의 제를 지내고자 하였으며 입신양명을 꾀하였다. 본 절에서는 계월이 부모와 재회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입신양명과 관련하여 갈등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녀의 마음은 …… 죽어 다시 남자되어 공맹의 행실을 배우고자 하였삽더니, ……”<sup>100)</sup>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계월은 현생(現生)에선 남성이 될 수 없으니 죽어서라도 그 뜻을 이루고 싶어한다. 계월의 운명은 현재의 삶에선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다. 때문에 계월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성이란 운명과 계속하여 싸웠다. 계월이 남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여화위남을 한 이유와 동일하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입신양명하는 것에 있다. 때문에 오왕과 초왕의 난 때 천자와 보국 그리고 사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

위의 예를 근거로 하여 파악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학습 요소는 첫째, 영웅소설의 근원은 설화에 있으며, 그 구성은 신화와 유사하다. 둘째, 영웅소설에서는 개인 간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홍계월전>의 주

99)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201쪽.

100)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89쪽.

인공은 개인·사회·운명과 갈등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한다면, 영웅소설의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라 본다.

## 2. 인물

소설에서 인물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발생시키고 마무리하는 주체로, 하위 갈래인 영웅소설에서도 인물이 사건을 이끌어간다. 영웅소설에서 인물은 세분화하여 인물의 역할에 따라 주요 인물과 조력자, 인물의 성격 유형에 따라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sup>101)</su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물의 역할과 성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을 어떻게,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물을 역할과 성격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시점을 중심으로 인물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주요 인물과 조력자

주요 인물은 사건을 이끄는 중심인물이며 조력자는 중심인물을 도와 돋보이게 하는 인물을 말한다. 이를 영웅소설에 대입하면 중심인물은 주인공인 영웅이며 조력자는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영웅을 돕는 도사, 노승, 양육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홍계월전>에서의 주인공 계월은 주요 인물이고 그를 돕는 조력자는 어린 계월의 목숨을 구원하고 양육한 1차 조력자 여공, 계월의 수학을 도와 임신양명의 길을 다져준 2차 조력자 도사로 구분할 수 있다.

계월은 여공에 의해 다섯 살 때 물에서 구해져 평국이란 이름으로 그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자랐다. 여공은 천자의 주선으로 계월이 보국과 결혼을 하여, 보국이 계월의 흉을 볼 때도 보국에게 충고와 조언을 하며 계월의 편을 들어준다.

101) 김은철 외 1명, 『新 문학의 이해』, 우리문화사, 1998, 171쪽.



후에 오왕과 초왕의 난으로 인해 난리가 났을 때는 수챗구멍에 숨어 있다가 계월에게 천자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처럼 여공은 계월의 구원자이자 양육자이며 계월의 입신양명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여공의 조력 중 특이한 점은 유교 사상이 팽배하던 때에 며느리인 계월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보국의 애첩 영춘이 계월에게 죽임을 당한 후, 보국이 아버지 여공을 찾아가 하소연하자 여공이 한 대답을 들 수 있다. 여공은 보국에게 “계월이 너를 옥보임이 다름 아니라, 어명으로 배필을 정하시매 전일 중군으로 부리던 연고라. 마음에 다시는 못 부릴까 희롱함이니 너는 추호라도 허물치 말라.”<sup>102)</sup>라고 하였다. 이 말처럼 여공은 보국에게 계월을 이해하고 나무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특이성은 근원설화, 즉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에 모티프가 있다. 이러한 모티프와 연관이 있는 설화로는 제주도 삼공본풀이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딸 셋에게 누구 복에 사는지 묻는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 덕에 산다고 대답하였지만 셋째 딸은 내 복에 산다고 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셋째 딸을 내쫓았고 그 이후부터 가세(家勢)가 기울었다. 반면 셋째 딸은 솥장이를 만나 신분이 천해지고 가난하게 되었으나 솥을 굽는 터의 돌(이맛돌)이 금덩이임을 알아봄으로써 부를 얻어 신분 상승을 한다. 이로써 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된다. 부녀의 갈등 요소인 누구의 덕에 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셋째 딸, 즉 여성에게 있다. 그 갈등의 해결은 “한 가정의 운명은 여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관념과 일치한다.<sup>103)</sup> 이러한 관념은 여공이 계월의 행동에 대해 “내 며느리는 천고에 영웅 군자로다.”<sup>104)</sup>라 말하는 것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난다.

계월은 고귀한 혈통으로 신이한 태몽을 꾸고 태어난다. 이후 죽을 위기에서 여공에 의해 구제되어 도사의 밑에서 수학하여 술법을 익혔으며 그의 도움으로 나라에서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할 때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계월은 영웅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월이 적재적소에 등장하

102)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1쪽.

103)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93~106쪽 참고.

104)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1쪽.

여 나라와 목숨을 구할 수 있던 이유는 도사에 있다. 도사가 천기를 읽어 계월의 운명과 나라의 위급함, 계월의 위험 노출을 알리기 때문이다. 도사는 당시 지배적 이념인 유교에 따라 주인공의 입신양명을 돕는다. 또한 도사가 천기를 읽어 나라가 영웅을 필요로 할 때에 맞춰 계월이 과거시험을 보게 한 것이나 전공을 쌓게끔 술법을 알려주고, 봉서를 주는 행동 등에서 주인공이 입신양명을 피하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월의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사는 특히 계월이 자신의 운명을 자세히 말해달라거나 부모의 행방을 물을 때면 천기를 누설하지 못한다는 답을 한다. 이러한 금기는 종교 의례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과의례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통과 의례는 격리, 전이, 통합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sup>105)</sup>. 격리 단계에는 부모와 계월의 이별이, 전이 단계에서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다시 남성에서 여성으로 돌아오는 계월의 모습이 해당한다. 통합 단계에서는 남편에게 존중받는 가정 생활과 여성 영웅으로 인정을 받는 사회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계월이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져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 2) 전형적 인물

앞서 영웅소설이 당시 민중의 갈망으로 태어난 소설이기 때문에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인물의 성격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때문에 사회 혹은 집단, 계층을 대표하는<sup>106)</sup> 전형적 인물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전형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작가는 소설의 배경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설정하고 그들을 내세워 이야기를 이끈다. 따라서 <홍계월전>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을 계월과 보국으로 보고,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인물의 전형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웅소설에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영웅에게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하여 민중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설정하였다. 신성성의 부여는 영웅의 일대기 중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탄생이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홍

105) 김용덕,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6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17쪽 참고.

106) 김혜성, 『신 문학원론』, 대광문화사, 1988, 84쪽 참고.

<계월전>에서는 계월을 평민보단 명문거족의 자손으로, 일반적으로 태어나기보다는 태몽을 통해 천상 존재의 적강임을 알려 영웅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두 구조는 “영웅소설에서 보여주는 비범한 주인공의 문학적 관습을 그대로 계승한 것”<sup>107)</sup>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성행하던 영웅소설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기 위해 인물의 전형적 성격이 관습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08)</sup>

한편 <홍계월전>의 계월과 보국의 전형성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계월은 본인의 힘으로 개인적 위기와 국가적 위기를 타파하고 더불어 개인의 문제까지 해결하였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계월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홍계월전>에서 계월은 민중의 소원을 성취해 줄 영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계월이 소망하는 바는 곧 민중의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계월의 개인적 소망은 남성이 되는 것이며 그 본질적 원인은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것에 있다. 계월은 천자에게 중매받아 답을 들으러 온 여공에게 “부모 슬하에 다른 자식이 없어 비회(非懷)를 품고 선영(先塋) 봉사(奉祀)를 전할 곳이 없사오니”<sup>109)</sup>라는 말을 한다. 당시는 여필종부로 인해 여성은 친정과 연이 끊어지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계월과 같은 외동딸 혹은 여성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가 팽배하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소설 속에서만나마 이를 이루고 싶어 하던 민심이 여기서 드러난다.

또한 계월이 남성이 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원인은 능력에 있다. 그는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입신양명하고자 하지만 유교적 이념에 의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진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보국에게 여공이 “계월이 너를 육보임이 …… 다시는 못 부릴까 희롱함이니”<sup>110)</sup>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 대화는 여성인 계월이 자신을 밑에 두고 희롱하는 것에 화가 나 보국이 아버지인 여공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래 보국은 계월을 남성으로 알고 있었다. 때문에 계월이 대원수로 자신의 위에서 군림하였을 때에는 묵묵히 지시를 이행하였다. 이처럼 보국은 계월의 성별에 따라 계월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107) 임성래, 『완관 영웅소설의 대중성』, 소명출판, 2007, 205쪽.

108) 임성래, 앞의 책, 198~205쪽 참고.

109)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89쪽.

110)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1쪽.

보인다. 즉 <홍계월전>에서는 단지 남성이란 이유로 사회에 진출하여 혼란을 야기한 남성을 희롱하고,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능력이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민심을 반영하였다. 다시 말해 계월은 민중을, 보국은 사대부를 대표하여 전형성을 보인다. 이때의 민중은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민중이다. 사대부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민중의 생각을 부당하다 여기며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처럼 계월의 모습에서 민중의 소원이 나타나며, 영웅인 계월이 그 소원을 이룬다는 면에서 전형성을 얻는다. 보국의 보수적 태도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 또한 전형성을 얻는다.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만연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에 따라 계월과 보국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인물의 전형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 시점

소설에서 시점은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눌 수 있다. 1인칭은 다시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3인칭은 작가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위치에 따라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할 때 영웅소설의 시점은 3인칭이며, 작중 인물이 말과 행동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작가가 모든 내용을 서술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홍계월전>에서도 “필연 수적을 만났도다.”, “이 분명한 양반의 자식이로다.”<sup>111)</sup>라고 여공이 계월을 구출하며 혼자 하는 생각과 계월의 친부가 도적 장시랑과 만나 “만일 듣지 아니하면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sup>112)</sup>라 생각하여 그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서달의 난 때 보국이 공을 세우고자 나설 때 계월이 혼자 속으로 “만일 위태하거든 징을 쳐 퇴하리.”<sup>113)</sup>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월이 봉서를 활용하여 목숨을 구한 후 적

111)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62쪽.

112)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63쪽.

113)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75쪽.

을 찾으며 “서달이 나 죽은 줄 알고 진을 파하고 황성으로 갔도다.”<sup>114)</sup>, “적장이 그리로 갔도다.”<sup>115)</sup>라 생각하는 것, 세월이 보국의 첩을 죽이고 난 뒤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영춘의 혐의로 아니 오는 도다. 뉘라서 보국을 남자라 하리오.”<sup>116)</sup>라 혼자 속으로 한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인물의 내면까지 알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사건을 작품 밖에서 보아 사건을 보고 말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다.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영웅소설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영웅의 내·외면적 요소를 고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를 절들을 근거로 파악한 인물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학습 요소는 첫째, 주요 인물은 주인공 영웅이며, 조력자는 영웅을 입신양명의 길로 이끈다. 둘째, 전형적 성격의 관습화다. 이 두 가지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홍계월전>을 교수·학습한다면, 작품 속 인물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 3. 배경

소설에서 설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작품 속 인물은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그들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배경은 크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사상적 배경<sup>117)</sup>으로 나뉘는데 본 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홍계월전>의 내·외적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1) 공간적 배경

영웅소설은 보편적으로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며, 꿈을 통해 주인공이 비범하게 탄생한 신의 적강임을 알린다.<sup>118)</sup> 따라서 <홍계월전> 내의 공간적 배경으로

114)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78쪽.

115)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79쪽.

116)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3쪽.

117) 문학이론연구회, 『문학개론』, 새문사, 2000, 125쪽.

118) 영웅소설 중 <조웅전>, <현수문전>, <황운전>은 배경을 송나라로, <장경전>은 진나라로 설정하였다. <금방울전>, <이대봉전>, <유충렬전>, <소대성전>, <장국진전>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중국과 꿈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홍계월전>에서 공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로, 계월이 활약을 펼치는 공간 역시 조선이 아닌 중국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현실 세계를 비판하기 때문이다. <홍계월전>은 현실의 권력자를 풍자하고 그들 대신 계월이 민중의 고난을 해결하며,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실제 거주지인 조선을 배경으로 작품을 기술한다면 소설의 내용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작가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는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자는 중국의 것을 차용하여 작품을 쓰고 작자가 누구인지 또한 밝히지 않는다. 그 예로 인물 부분에서 밝혔던 전형성을 들 수 있다. 계월은 능력 차별의 근원이 유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불운 및 고난 측면에서 당시 지배적 이념이던 유교에 반기를 든다. 팔시반던 여성이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은 계월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홍계월전>은 기득권층의 권력 획득 및 남용의 근거였던 유교 이념을 배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이념에 반발하는 것으로 여겨져 작자의 신상에 해로울 수 있었다.

둘째, 중국에 대한 동경이다. 조선은 소중화의식(小中華意識)을 가질 정도로 중국을 동경하였다. 조선은 <홍계월전>에 등장하는 중국 명나라와는 군신 관계를 맺어 일본의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거절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믿음과 동경이 굳건하였다. 한편 <홍계월전>이 창작된 조선 후기에는 명이 멸망하고 청이 그 자리를 채워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이 제기되고 있을 때였다. 명이 쇠망하였음에도 소설 속 배경이 명나라인 것에서 영웅소설의 인물뿐 아니라 배경 역시 고착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굳어져 영웅소설에 정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독자의 중국에 대한 지식 부족이다. 영웅소설의 독자층 대부분은 민중이다. 이들은 먹고살기 바빠 자신이 사는 조선에 대해 모르는 이들도 많았다. 따라서 국외인 중국의 지리와 역사를 모르는 독자 역시 대다수이며, 작가의 사전조사

---

로 하였다. 또한 <곽해룡전>, <유문성전>, <장백전>은 원나라를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웅전>을 제외한 다른 영웅소설들은 꿈을 통해 천상 존재가 적강함을 암시한다. 그 예로 <곽해룡전>에서 남해 용자의 꿈을 꾸고 곽해룡을 회입한 것, <소대성전>의 소대성은 동해 용왕 아들의 꿈을 꾸고 난 후 잉태된 것이 있다. 이밖에도 <황운전>의 남성 영웅은 황의 동자의 꿈을, 여성 영웅은 계화 일지를 받는 꿈을 꾸고 태어났다.

미숙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어긋남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그 예로 배경의 고착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홍계월전>의 시간적 배경으로 추정되는 명나라 헌종(약 1465~1487)<sup>119)</sup> 때와 작품이 창작된 조선 후기의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1592~1598)의 시기가 들어맞지 않다.

영웅소설에서 꿈은 주로 암시, 지시의 역할을 한다. 계월의 친부모는 회임을 암시하는 천상 존재의 적장 꿈을 꾸고 난 뒤 임신을 한다. 이 꿈은 계월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천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능력 면에서 월등한 남다른 인물의 탄생을 암시한다. 꿈의 암시 기능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요소로 계월의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된 영웅적 면모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계월의 친모가 꿈을 꾸고 난 후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난다는 구절은 꿈이 친모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월의 친모 부인 양씨가 남편 홍시량을 찾길 원하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꿈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꿈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결여와 충족, 좌절과 성취의 상태로 상징”<sup>120)</sup>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홍계월전>에서는 ‘강’이라는 배경이 눈에 띈다. 용자 혹은 용녀의 환생인 계월의 출생이 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계월과 친모가 피난길에 오를 때 강에 선녀가 배를 타고 나타나 구해준 것, 계월이 맹길에 의해 강물에 빠져 죽을뻔하였으나 살아난 것, 맹길에게서 여승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계월의 친모와 시비 양윤, 춘랑이 도망쳐 나온 것과 같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계월과 그 주변의 선한 인물이 구사일생하는 곳은 모두 강이다. 또한 계월의 친모가 시비 양윤과 함께 남편을 찾으러 갈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 것, 서달의 난 때 계월이 서달을 쫓아 배를 타고 벽파도에 가 친부모를 만난 것과 같이 계월에게 있어 좋은 일을 야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물과 관련된 장소에서 계월이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는 까닭은 수신신앙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계월이 용자 혹은 용녀의 환생이기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

119)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213쪽 참고.

120) 안기수, 앞의 책, 190쪽.

이며 세월 본연의 공간이기에 이로온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작품 외의 공간적 배경으로는 창작 당시의 조선 사회를 들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임병양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왜란은 약 7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가 채 정리도 되기 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나라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 기득권층은 계속된 전쟁에서 강상윤리(綱常倫理)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으며, 여전히 유교를 이용하여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기득권층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민중을 지켜 내지 못하였고 실추된 국가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민중에게 강상죄를 적용하여 억압하였다. 전쟁 후 지배층은 본래의 전란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민중의 조세 부담은 과해져 점점 피폐해져 갔다. 즉거시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으나 미시적으로는 더욱 굶아가고 있었으며 신분제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sup>121)</sup>

한편 시비법, 모내기 등의 농업 기술 발달로 농업 생산량 증가 및 광작이 생겨나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부농이 생겨났다. 시비법과 모내기를 통해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 절감으로, 많은 노동력에 비해 경작할 땅이 부족해졌다. 이러한 반비례 현상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해 밀려난 농민은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다 남은 농산물과 손으로 만든 공산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의 변화로 인해 관직이 없는 일부 기득권층은 몰락하였으며 부를 축적한 민중은 기득권층의 신분을 사들여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신분제의 붕괴와 맞물려 국가 혼란의 가중을 불러왔다.<sup>122)</sup> 더불어 조선 초 관직에 종사하거나 신역(身役)을 하는 이를 제외한 사람들은 균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득권층은 균역이 면제되었으며 양인들만 균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균역이 하층민의 경제적 수탈을 가중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천한 사람이 균역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하층민의 균역 탈출을 야기하였고 그 방법 중 하나는 신분 상승 즉, 벼슬하지 않는 유생이 되는 것이었다. 또한

121) 송하준,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상과 주제의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4~15쪽 참고.

122) 이경숙, 「조선 후기 사회변동 교육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15쪽 참고.



기득권층도 평민이나 천민도 아닌 중간층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재물을 바쳐 신분 상승하고자 하였다.<sup>123)</sup> 상공업의 발달과 부농의 등장, 신분제의 붕괴는 근대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중의 의식도 개화되었다.

이처럼 임병양란, 농업의 발달로 인한 부농의 등장, 신분제의 붕괴 등으로 인해 근대화되는 조선 후기의 과도기적 모습이 영웅소설에서는 민중의 소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홍계월전>에서는 임병양란의 패배가 서달의 난, 오왕과 초왕의 난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부농의 등장 및 신분제의 붕괴는 유교적 윤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2)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으로는 공간적 배경에서 파악한 창작 당시의 조선 후기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약하자면 <홍계월전>의 작품 내적 시간적 배경은 명나라이며 성화(成化)란 연호를 쓰는 현종의 다스림을 받던 때로 추정된다. 작품 외적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의 임병양란이다. 조선 후기에는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고된 삶 속에서 도적의 수탈이 빈번하였으며 기득권층이 국가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거나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법으로 피지배층을 속박하였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의 안정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신분제의 고착화가 심해짐에 따라 기득권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격차는 커졌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다.<sup>124)</sup>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사상 및 경제가 근대화되자 조선 후기 민중은 사회적 갈등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적 평등을 바랐다. 하지만 민중은 주체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이룰 힘이 없었고 그 꿈을 이뤄줄 대체자로 영웅을 염원하였다. 이러한 민중의 생각은 고스란히 문학에 반영되어 영웅소설로 등장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홍계월전>이다.

첫째, 당대의 사회적 상황은 영웅소설을 성행하게 하였으며 영웅소설을 판매하

123) 이경숙, 앞의 책, 16~18쪽 참고.

124) 김인규, 『조선후기 신분제 개혁론의 새로운 지평 - 身分主義에서 職分主義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동양고전연구』 제 30집, 동양고전학회, 2008, 157쪽 참고.

는 방각본업자와 책을 흥미롭게 읽어주는 전기수와 같은 직업군을 등장시켰다. 방각본업자는 유행하던 갈래인 영웅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사회적 배경에 따라 영웅소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소설의 창작과 상업적 판매가 병행됨에 따라 더 많은 책을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해서 일정한 틀을 변형시켜 글을 창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소설 속 인물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전기수는 영웅소설을 읽는데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감정을 서술하거나 미사여구 첨가, 장면의 전환, 요약 및 해설 등을 활용하였다. 전기수의 감정 서술은 청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며, 전기수의 주관을 소설의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전기수의 첨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 서술이다. 그 예로 계월의 친부가 친구를 만나고 난 후 떠날 때 “섭섭한 정회를 어찌 측량하리오.”<sup>125)</sup>라 하는 것과 장시랑의 난으로 가족과 이별하게 되자 “부인과 계월을 생각하며 슬피 우니 사세 가련하더라.”고 그의 섭섭하고 슬픈 감정을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서술한다. 또 다른 예로 계월의 친모가 계월이 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그 불쌍하고 민망한 일을 어찌 다 측량하리오.”<sup>126)</sup>라 말하고 그 장면을 보고 “슬프다.”<sup>127)</sup>라 말하는 것이 있다. 또한 “계월이 녹의홍상으로 단장하고 시비 등이 좌우에 부축하여 나오는 거동이 엄숙하여 비녀 꽂은 장부러라. 아름다운 태도와 요요정정(夭夭貞靜)한 형상이 당세에 제일일러라. 또한 담 밖에 여러 장수들과 군졸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깃발과 칼과 창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옹위하였으니 그 위의 엄숙함을 측량치 못할러라.”<sup>128)</sup> 등의 미사여구 사용은 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영웅적 면모를 보여준다.

장면 전환의 예로 각설, 차설을 사용하여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있다. 일례로 여공이 광도사에게 평국(계월)과 보국을 보이고 하직하여 내려오는 장면에서 일순 “각설. 이때 홍시랑은 산중에 몸을 감추고 있더니”<sup>129)</sup>와 같이 친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빠른 장면의 변화는 청자의 흥미

125)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55쪽.  
 126)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58쪽.  
 127)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58쪽.  
 128)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91쪽.  
 129)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63쪽.

가 떨어졌을 때쯤 다른 이야기를 하며 시선을 끌어모아 다시금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요약 및 해설 중 요약의 예로 계월의 친부모가 벽파도에서 재회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들 수 있다. “고소대에서 중 된 말이며, 부처님이 현몽하여 벽파도로 가라던 말이며, 전후수말을 다하고 슬픔을 참지 못하니, 사랑이 계월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기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왈,”<sup>130)</sup> 청자는 앞선 이야기를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수가 재차 구술할 필요가 없다. 즉 응축된 이야기는 청자의 흥미를 지속시킨다. 해설의 예는 맹길을 설명한 “원래 이 배는 수적(水賊)의 배라. 수상으로 다니며 재물도 탈취하고 부인도 겁간하더니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부인을 만났는지라.”<sup>131)</sup>가 있다. 맹길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아도 먼저 설명을 해준다. 이는 청자의 이해를 도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방각본업자와 전기수의 등장은 영웅소설의 흥미와 수요를 충족시켜 유행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했다.

### 3) 사상적 배경

본 절에서는 <홍계월전>의 사상적 배경 중 종교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작 당시 종교의 모습은 <홍계월전>에 반영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홍계월전>에서는 작품 내에 반영된 종교의 모습을 통해 작품 외적인 종교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홍계월전>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배경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천신과 수신 신앙이다. 계월은 천상 존재의 적장이라는 점에서 천신을 숭배하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으며 용자와 용녀라는 점에서 수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천신과 수신은 농업사회와 연관이 있다. 과학 기술이 미비하던 조선 시대에는 적절한 일조량과 바람, 강수량이 있어야만 흉작을 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민중은 한 해 농사를 위해 해와 바람, 비를 내려주는 신을 숭배하였다. 민간신앙은 해와 바람과 관련된 천신, 비(물)와 관련된 수신으로 나누어 나타났다. 수신신앙

130)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68쪽.

131) 정병헌 외 1명, 앞의 책, 157쪽.

과 미륵신앙은 혼합하여 나타났다. 이는 계월의 친모에게 배를 타고 다가와 벽파도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 승려이며 그를 따라가 상좌(上佐)가 되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계월의 친모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승려가 강에서 배를 타고 등장하였다는 것은 수신신앙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불교의 반영은 계월이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생과사를 반복한다는 점, 세존의 지시로 계월이 홍시랑과 양씨 부인의 자녀로 태어난 점에서 나타난다. 또한 계월의 친모가 상좌가 되어 불전(佛典)을 따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덕으로 꿈을 통해 남편과 계월을 찾을 수 있던 점에서 드러난다.

이밖에도 유교, 도교 또한 <홍계월전>에 반영되어 있다. 먼저 유교적 사상은 남성만이 사회진출을 하여 입신양명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또한 계월이 충(忠)과 효를 다 하고자 하는 점 등에서 드러난다. 충은 입신양명하여 천자를 모시고자 하는 것에서, 효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유교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의 종교 및 윤리로 채택되어 있어 깊이 관여되어 있다. 때문에 다른 종교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유교 사상이 소설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교는 주인공이 비현실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종교적 요소로 등장한다. 그 예는 도교적 측면은 도사가 계월에게 술법을 가르치고 계월이 술법을 쓰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술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격화된 영웅만이 술법을 부려 민중의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서 “당대인의 현실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욕구 불만을 카타르시스하려는 욕구로 그들의 꿈과 이상을 도교적 요소로 형상화”<sup>132)</sup>한다. 이러한 도교의 반영은 당대의 현실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기에 현실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으며 뛰어넘어도 무방한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대리만족하기 위함에 있다.

이처럼 <홍계월전>에는 민간신앙과 유·불·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종교들에서 조선 후기 민중의 모습 및 소망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민심이 영웅소설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출해 낸 <홍계월전>의 배경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학습 요소는 첫째, 공간적 배경의 설정 이유이다. 둘째, 작품 창작 배경 파악이다. 셋째,

132) 안기수, 앞의 책, 보고서, 2004, 220쪽.

작품의 수용 과정 파악이다. 넷째, 종교의 반영이다. 이 네 가지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한다면, 배경을 통해 당시 민중의 삶의 모습과 소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4. 주제

<홍계월전>이 쓰여진 당시는 국가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민중은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때문에 인간을 웃도는 능력을 갖춘 영웅적 인물을 소설 속 주인공으로 내세워 소망을 대신 이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인공의 등장은 대중의 동감을 얻고 하나의 작품군을 형성해 성행하였다.

계월이 대신 이루어주는 민중의 소망은 첫째, 사회적 평등이다. 계월은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차별을 뛰어난 능력으로 극복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적 평등을 보장받았다. 이는 성별 상관없이 평등하게 사회에 진출하여 입신양명하길 원하는 민중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둘째, 국가 내·외의 안정이다. 계월은 국가 내적으로는 도적 맹길과, 국가 외적으로 서달 그리고 오왕·초왕과 대적하여 승리하였다. 이는 도적의 수탈과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받던 민중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홍계월전>의 주제는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을 통한 민중의 수난 극복’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사회학적 비평 방법으로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를 사건, 인물, 배경,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학에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작품에 창작 당시의 사회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파악하였다.

<홍계월전>에 드러난 전통적 이념으로 인해 현대의 독자인 학습자는 현대의 이념과 괴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회적 구성주의를 선택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를 <홍계월전>에 적용하여 교수·학습할 경우, <홍계월전>이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토대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학습자 이념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홍계월

전> 주인공의 소망으로 나타난 사회 현실에 대한 진보적 의식은 학습자가 불합리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여 스스로 타개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가치와 활용도로 인해 <홍계월전>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그 기저는 앞서 추출한 <홍계월전>의 학습 요소이다. 그 활용 방안으로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V. 사회적 구성주의를 적용한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 공통 국어의 「문학 영역」과 일반 선택 과목 『문학』의 성취기준 중 영웅소설에 적용된 일곱 가지 성취기준 모두를 수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육적 활용 기준인 흥미성, 협동성, 적극성을 바탕으로 하여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성취기준에 따른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홍계월전> 교수·학습 방안 마련을 위해, 앞서 추출된 학습 요소를 수업 내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II장의 <표 3>의 일곱 가지 성취기준 중 ③, ⑥, ⑦의 성취기준은 흥미 유발을 위해 도입 부분에 적용하여 흥미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①, ③, ⑥, ⑦의 성취기준은 교사와 학습자의 지식 공유 및 협상을 위해 발문을 사용하여 지식을 안내하고 작품 감상을 돕는 문답식 교수법을 활용하여 적극성에, ②, ④, ⑤의 성취기준은 학습자의 내면화를 돕는 협동학습 형태로 협동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의 <홍계월전> 교수·학습 활동 방안은 다음의 지도안과 같다.

<b>대상</b>	고등학교 학생
<b>학습 장소</b>	교실
<b>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b>	<p>①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서사 문학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p> <p>②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문학작품을 생활화할 수 있다.</p> <p>③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p>

	<p>이해하고 감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li> </ul> <p>④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소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li> </ul> <p>⑤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창작할 수 있다.</li> </ul> <p>⑥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영웅소설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다.</li> </ul> <p>⑦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li> </ul>
<p><b>학습 단계</b></p>	<p><b>교수·학습 활동</b></p>
<p><b>도입</b></p>	<p>▶ &lt;홍계월전&gt;과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lt;홍길동전&gt;을 활용하여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lt;홍길동전&gt;이라는 작품이 조선 시대의 문학 및 서사 갈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하도록 조력한다.</li> <li>- 학습자가 ‘한글 문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수 있도록 발문을 통해 유도한다.</li> <li>- 학습자가 &lt;홍길동전&gt;의 내용 혹은 특징을 떠올리게 하여 작품에 창작된 조선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li> </ul> <p>▶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조선 후기의 역사적 사건 혹은 생활 모습을 발표하고 교사가 이를 판서 및 첨언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조선 후기에 대한 배경지식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한다.</li> <li>- 순회지도를 하며 학습자가 빙고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에 오류가 있</li> </ul>



	<p>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를 바로잡아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와 현대의 영웅 간의 유사성을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문을 통해 학습자가 ‘영웅’의 범위를 생각해 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웅의 개념을 정의한다.</li> <li>- 각자가 생각하는 영웅의 범주에 속하는 현대의 인물은 누구인지 발표하게 한다. 이후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작품 창작 당시에 필요한 영웅의 모습을 발표하게 한다.</li> <li>- 발표를 통해 파악한 현대와 과거 영웅의 모습을 통해 둘 사이의 유사성을 파악하게 한다.</li> </ul> </li> <li>▶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국문 문학의 발달을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국문 문학 발달의 시작을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유를 상기시킨다.</li> <li>-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계층의 처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문 문학 발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li> </ul> </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신화와 영웅소설 간의 서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lt;동명왕신화&gt;를 활용한다. 이후 두 작품 속 주인공의 공통된 속성을 파악하게 한다.</li> <li>- 발문을 통해 학습자가 영웅소설이 영웅의 일대기를 기본으로 하여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li> </ul> </li> <li>▶ 학습 목표 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작품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li> <li>-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 및 해석한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li> </ul> </li> <li>▶ 학습 목표 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문과 보조자료,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종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필 수 있도록 조력한다.</li> </ul> </li> <li>▶ 학습 목표 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을 마련한다.</li> <li>-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을 수용한다.</li> </ul> </li> <li>▶ 학습 목표 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회지도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돕고, 협동 창작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습자가 없게끔 조력한다.</li> <li>- 통일성이 있는 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여섯 단락을 합쳐 침삭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상기시킨다.</li> </ul> <p>▶ 학습 목표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문과 보조자료를 통해 영웅소설의 구조 및 인물이 전형성을 띠는 원인과 작품의 수용과정을 파악하도록 한다.</li> </ul> <p>▶ 학습 목표 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문을 통해 과거와 현대사회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작품의 현대적 가치를 파악하게 한다.</li> </ul>
정리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활동지 및 게임 활용).

위의 지도안은 영웅소설에 적용된 일곱 개의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의 전개 순서에 맞춰 제안한 교수·학습 방안을 축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지도안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아래와 같다.

## 1. 도입

도입부에서는 학습 전 흥미 유발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흥미보다 중요하다고 본 비고츠키의 견해를 반영하여 해당 성취기준에 ‘흥미성’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전략으로 배경지식과 경험, 매체를 활용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성취기준 ③을 적용하여,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해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성취기준 ⑦을 적용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현재와 비교하여 보는 것이다. 셋째는 성취기준 ⑥을 적용하여, 서사 갈래의 전개 양상 계기를 유추하여 보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상호 텍스트성 활용

<홍길동전>은 조선 시대 때 창작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점에서 조선 시대 문학·서사 갈래의 모습과 연관성이 있어 상호 텍스트성이 있다. <홍길동전>은 몇몇 2015 개정 교과서에 활용되고 있으며 대중성이 높아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배경지식과 연관하여 생각하기 용이하다. 또한 최초의 한글 소설이기 때문에 국문 문학의 초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시각적 재미를 위해 <홍길동전>의 내용을 단순히 글로 보여주기보다는 만화로 재구성된 것을 일부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련 애니메이션, 영화 등과 같은 영상 매체 활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교수·학습 시 교사는 학습자에게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이 앞으로 배울 조선 시대의 문학, 서사 갈래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한글 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하며, 글 또는 만화, 영상을 통해 학습자가 <홍길동전>의 내용 혹은 특징을 떠올려 보도록 하여 작품에 조선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 2) 당대의 사회 모습과 오늘날과의 유사성 활용

고등학생은 작품이 창작된 조선 후기의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는 배경지식이 있다.<sup>133)</sup> 흥미 유발을 위한 교수법의 예로, 교사는 작품이 쓰인 조선 후기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빙고 게임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조선 후기의 역사적 사건 혹은 생활 모습 등을 키워드로 학습자가 발표하게 한다. 둘째, 교사는 이를 판서하고, 학습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부가설명을 하거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준다. 셋째, 빙고에 쓰일 단어가 정리되면 학습자는 모둠 별로 빙고를 진행하는데, 이때 키워드를 설명하지 못하면 빙고를 완성할 수 없다

133) 한국사는 고등학교의 공통 과목 중 하나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이전의 학습 경험을 통해 조선 사회에 대해 배경지식이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이 과목에서는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성취기준을 통해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학습한다. 교육부d, 『사회과 교과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4-74호, [별책7], 교육부, 2015, 140~147쪽 참고.

는 제한점을 둔다. 넷째, 빙고를 마무리한 후 판서한 것에 대해 정리하고 요약한다. 이와 같은 게임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사회적 배경을 쉽고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밖에도 영웅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현대사회의 영웅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발표하는 것이 있다. 교사는 영웅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활용해 당대 영웅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조력하여야 한다. 사회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위하는 과거와 현대 영웅의 유사성은 학습자의 심리적 간극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창작 당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때문에 교사는 판서된 내용과 설명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시대적 상황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음을 말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언급하여야 한다.

### 3) 조선 시대 문학과 서사 갈래의 전개 배경 활용

조선 시대의 문학은 크게 훈민정음의 창제 전후로 나눌 수 있으며 서사 갈래의 전개 양상 역시 이를 기점으로 하여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으로 분류된다. 한문 문학은 크게 가전체와 몽유록으로 나뉘며<sup>134)</sup> 국문 문학은 군담소설과 판소리계 소설로 나뉜다. 그중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군담소설, 즉 영웅소설은 임병양란을 소재로 하여 등장한 것으로 “설화적인 전승”<sup>135)</sup>과 “불교적인 상상이나 중국 소설에서 유래한 수법”<sup>136)</sup>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문학의 시기별 분류를 주제로 하여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피지배계층의 작품 창작 모습과 독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한글 창제와 관련한 학습을

134) 대표적으로 가전체 소설에는 김우옹의 <천군전>, 임제의 <수성지>가 있으며 몽유록에는 신광환의 <기재기이>, 최현의 <금생이문록> 등이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472~479쪽 참고.

13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제3권, 지식산업사, 2002., 83쪽 재인용. 조동일은 고대에는 건국신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세 후기에 이르러 설화가 몰락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근대로의 이행기 때 설화는 다시 흥하였고 민중의 의식 성장을 표현하는 설화 작품이 창작되어 그 성과가 야담이나 소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조동일, 앞의 책, 439~440쪽 참고.

136) 조동일, 앞의 책, 83쪽 재인용.

하였기 때문에 학습 시 학습자는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 시 교사는 학습자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한자의 수가 많고 복잡하여 먹고 살기 바쁜 민중은 글자를 배우기 힘들었으며 국가를 위해 일하던 지배계층만이 글자를 익혔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글자를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던 민중이 읽고 쓰는 것과 더불어 창작까지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교사는 훈민정음 창제 전후의 문학 양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2. 전개

전개 부분에서는 발문을 통한 객관적 지식의 전달과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협동학습을 함으로써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절한 발문 제시와 협동학습을 위해 성취기준을 학습 목표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이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영웅소설의 성취기준과 그에 따른 학습 목표

연번	성취기준	학습 목표
①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서사 문학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②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문학작품을 생활화할 수 있다.
③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④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작품을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소통한다.	
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창작할 수 있다.
⑥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영웅소설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다.
⑦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표 6>의 ①은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의 주요 특징”<sup>137)</sup>을 알고 그 특성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sup>138)</sup>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홍계월전> 이해의 바탕은 서사 문학의 발달과정에 있다고 보아 이를 학습 목표로 삼았다. ②의 성취기준은 “작품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sup>139)</sup>된 것으로, 그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sup>140)</sup>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주체적 이해와 창의적 표현을 융합하여 학습 목표로 제시하였다. ③의 성취기준은 <홍계월전>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여러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학습자가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맥락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사는 교수 시에 다양한 맥락의 예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취기준 ④의 해설에 따르면 상호소통할 때 “타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sup>141)</sup>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타자와 교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④의 성취기준은 명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가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표 6>의 학습 목표 ②의 ‘주체적 해석’과 대응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습 목표 ⑤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성취기준 ⑥은

137) 교육부a, 앞의 책, 66쪽.  
138) 교육부a, 앞의 책, 66쪽,  
139) 교육부a, 앞의 책, 66쪽.  
140) 교육부a, 앞의 책, 67쪽.  
141) 교육부a, 앞의 책, 127쪽.

“구비 문학, 한문학, 국문 문학의 세 영역 아래 다양한 역사적 갈래로 구현된 양상을 탐구”<sup>142)</sup>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때문에 국문 문학에 속하는 영웅소설의 전개와 구현된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았다. 성취기준 ⑦은 해설에 따르면 “당대의 사회를 살펴보고,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날의 사회 상황과 비교하거나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sup>143)</sup>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과 역사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 학습 목표를 토대로 <홍계월전>을 교육한다면 학습자는 현대와의 유사성과 교육적 가치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시한 학습 목표를 문답식 교수와 협동학습의 하위 항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문답식 교수에서 발문은 단일한 대답을 요하는 폐쇄형과 학습자의 확장된 답을 들을 수 있는 개방형 발문<sup>144)</sup> 모두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학습자의 대답 혹은 교사 질문의 예를 들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발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옳다, 아니다’로 나누지 않아야 하며, 계속된 질문을 함으로써 객관적 지식인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언어적 요소와 더불어 적절한 보조자료의 활용은 학습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때문에 보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협동학습으로는 국어과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작문연구분야<sup>145)</sup>와 관련된 협동 창작과 상호소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협동학습에서는 학습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합의 및 협동을 장려하도록 할 것이다. 학습자 간의 합의 및 협동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 구성 방법이 기 때문에 학습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1) 문답식 교수

142) 교육부a, 앞의 책, 128쪽.

143) 교육부a, 앞의 책, 129쪽.

144) 한형식의 발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는 심진(心震)을 일으켜 학습자가 사고하게 하고 또 사고하기 쉬운 입상적으로 검증된 발문 기술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한형식, 『수업 사례로 배우는 수업기술의 법칙』, 즐거운학교, 2010, 174~218쪽 참고.

145) 강인애 외 8명, 앞의 책, 149쪽 참고.

(1) 서사 문학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표 6>의 학습 목표 ①은 서사 문학의 발달과정을 통해 작품 이해·감상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서사 문학의 하위 갈래인 영웅소설의 발달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영웅소설 작품 <홍계월전>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때문에 학습 목표 ①은 영웅소설, 즉 <홍계월전> 창작의 구조적 토대를 알아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인물 부분의 ‘주요 인물과 조력자’와 사건 부분의 <홍계월전> 주인공의 일대기를 통해 ‘영웅소설의 근원’을 파악하는 학습 요소를 활용하게 된다.

<발문 A>

<보조자료 a>	
동명왕신화 <sup>146)</sup>	서사구조
하늘의 신 해모수와 강물의 신의 딸 유화의 아들이다.	고귀한 혈통
햇빛을 받고 잉태되어 알로 태어났다.	비범한 탄생
주몽이 알의 모습일 때, 금와왕이 알을 깨고자 하였으나 깨지 못하였다. 주몽이 사람의 모습일 때, 금와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시기하여 죽이려 한다.	불운 및 고난
유화가 주몽에게 목숨이 위협함을 알렸다. 주몽이 도망가던 중 길이 없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조력자에 의한 구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자신에게 복속하기를 요구하는 비류국의 송양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	도술 혹은 신이한 자의 도움으로 인한 입신양명
행인국(荇人國)과 북옥저 등과의 전쟁에서 이겨 영토를 확장한다. 아들 유리가 어머니(주몽의 아내)와 함께 부여에서 도망쳐 고구려로 왔다.	명예로운 귀환 및 부귀영화

146) 이복규는 『삼국사기』를 소재로 하여 <동명왕신화>를 번역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표로 정리해 요약 제시하였다. 이복규, 「<주몽신화>의 뜻 풀이1 - 『삼국사기』소재 자료」, 『동방학』,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1996, 168~185쪽 참고.



- ❶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그렇다면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
- ❷ 주인공은 신비한 꿈을 꾸고 난 후 잉태되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 ❸ 주인공은 왜 가족과 헤어졌으며, 주인공을 도와줄 인물은 누구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❹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주인공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이때 주인공의 적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난을 일으켰나요?
- ❺ 전쟁에서 승리하여 황제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주인공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요?
- ❻ 주인공이 성(性)을 속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작품은 여화위남을 기준으로 남성·여성 영웅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교사는 교수 시 학습자에게 남성 영웅소설과 여성 영웅소설로 나누지 않고 작품을 살펴볼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자료 a>는 <동명왕신화>의 주인공 주몽의 일대기를 영웅소설의 서사구조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작품 간의 구조적 유사성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때문에 본격적인 학습 전, 교사는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영웅소설과 신화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음을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유사성 파악의 자료로 <동명왕신화>를 선정한 이유는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관련이 있어 주몽이라는 인물이 친숙하기 때문이다.<sup>147)</sup>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친숙함을 활용하여 <동명왕신화>와 <홍계월전>의 서사구조의 유사성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홍계월전>의 서사구조를 파악하는 발문은 ❶~❺와 같다.

❶은 영웅소설 구성의 특징을 밝히고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묻는 발문이다. 영웅소설은 영웅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로 표현한 갈래이다. 때문에 작품을 읽기 전에 핵심인물을 알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게 하고, 그 인물인 ‘계월’을 중심으로 하여 서사구조를 파악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발문 ❷은 계월의 비범한 탄생과 관련한 것이다. 이 발문은 계월의 친모가 태몽을 꾸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계월의 태몽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하지 않았다. 때문에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모르나, 발문의 내용

147) 중학교의 역사 과목에서는 성취기준 [9역01-06]으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의 정치적 특징”에서 대해 학습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을 통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라는 인물이 친숙할 것이라고 보았다. 교육부e,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3], 교육부, 2015, 118쪽.

중 ‘신비한 꿈’이라는 키워드가 내재해 있어 학습자의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만일 학습자가 발문 내의 힌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교사는 “선생님 친구는 아기의 태몽으로 용이 나오는 꿈을 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꿈에 나온 용은 실재하는 동물인가요?”와 같이 예 혹은 경험을 활용한 안내가 가능하다. 또 다른 조력의 예로는 “태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태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학습자가 있나요?”라는 질문의 형태로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끌어내는 것이 있다. 이후 교사는 학습자의 발표를 종합하여 ‘태몽의 신이함, 비범함’을 도출해 계월의 뛰어난 능력과도 연관하여 학습할 수 있다. 계월의 태몽에 대한 학습을 한 후, 교사는 발문 ②를 확장하여 “주인공의 부모는 죄를 지은 하늘 위의 존재가 내려오는 꿈을 꾸고 주인공을 잉태하였습니다. 꿈을 꾸게 된 이유는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라고 학습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 발문은 ‘고귀한 혈통’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발문만으로는 학습자의 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작품에는 단지 계월의 친부모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고 꿈을 꾸어 잉태했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또 다른 발문을 통해 학습자를 조력하여야 한다. 우선 교사는 학습자가 계월의 친부모의 꿈에 등장한 선녀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선녀는 실존하지 않는 존재로, 꿈의 신이함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선녀가 말하는 죄는 무엇일지 상상하여 보고,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와 같이 학습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발문을 통해 학습자는 계월의 본래 신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어 교사는 “계월의 친부모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에 천상 존재의 꿈을 꾸었으며, 천상 존재인 계월을 잉태할 수 있었나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영웅의 가정적 배경인 ‘고귀한 혈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발문은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홍계월전>의 초반부는 여느 영웅소설과 다름없이 영웅의 가정 배경을 서술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③은 계월이 가족과 이별한 이유와 그를 도와준 조력자에 대해 묻는 발문이다. 즉 계월의 ‘불운 및 고난’과 ‘조력자에 의한 구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발문은 계월이 ‘장시랑의 난’으로 인해 가족과의 이별을 겪었으며, 계월을 도운 사람은 ‘여공과 도사’라는 학습자의 즉각적인 대답을 요한다. 교사는 이 대답을 토대로

“조력자들이 계월을 돕는 이유는 계월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계월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월의 자격은 무엇일까요?”와 같은 발문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계월의 능력에 대한 근거를 찾게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발문을 통해 계월의 본래 신분을 상기할 수 있으며, 계월이 도술을 부리는 비현실적 모습의 타당성을 학습할 수 있다.

④는 계월의 적대자와 적대의 이유를 통해 계월이 ‘도술 혹은 신이한 자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발문이다. 이 발문은 발문 ③과 같이 학습자가 즉각적 대답을 할 수 있으며, 그 답을 토대로 학습자의 사고(思考)를 요하는 발문을 할 수 있다. 우선 계월의 개인적·국가적 적대자는 ‘맹길’이다. 맹길은 본래 ‘계월을 죽이려 한 인물’이면서 ‘명나라를 탐내는 인물’이다. 또 다른 적대자는 ‘서달, 오왕과 초왕’이며 이들은 국가적 적대자로 맹길과 동일하게 ‘명나라를 탐내는 인물’이다. 따라서 계월이 맹길과 서달·오·초왕을 적대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과 ‘개인적 원수를 갚기 위함’에 있다. 이 답을 바탕으로 교사는 “주인공은 전쟁 중 목숨이 위험한 순간, 도사가 준 봉서를 사용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 외친 주문은 무엇인가요?”라고 발문할 수 있다. 이 발문은 계월의 신분을 묻는 것으로, 앞서 파악한 천상 존재와는 또 다른 ‘용자’라는 답에 도달하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계월이 용자라는 근거를 작품 속에서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계월의 신분을 살핌으로써 계월의 신적(神的)인 면모를 파악하게 한다. 이후 교사는 함께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계월의 모습이 신화의 주인공과 유사함을 알아보고, 구조적 측면 역시 비슷하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상기시킨다.

⑤는 전쟁에서 승리한 계월이 얻는 바, 즉 ‘입신양명’과 ‘명예로운 귀환 및 부귀영화’에 대한 발문이다. 주인공에게 생긴 변화는 궁궐, 금은보화, 직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천자가 ‘계월의 영웅적 면모를 인정’한 것에 있다.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가 그 근원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한 나라의 왕이 신하에게 포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발문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발문 ⑥은 계월의 ‘여화위남’과 관련이 있다. 이 발문은 확장하여 “계월이 성(性)을 속이면서 느꼈을 심정과 천자에게 남장한 사실을 말할 때의 심정을 비교

하여 봅시다.”와 같이 학습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 발문을 통해 학습자는 계월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구조적 측면에서 벗어나 인물 측면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발문 A>를 활용하여, <홍계월전>의 주인공 계월의 본래 신분에 중점을 두어 신화·영웅소설 주인공의 본래 신분이 신(神)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신화와 영웅소설 간의 서사구조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2)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표 6>의 학습 목표 ③은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조선 후기에 창작된 <홍계월전>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종교적 측면 등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제와 배경 부분에서 추출한 ‘공간적 배경의 설정 이유’와 ‘작품 창작 배경’, ‘종교의 반영’을 활용하고자 한다.

### <발문 B>

- ❶ 주인공이 태어난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❷ 사회에 대한 반발 혹은 민중의 염원으로 창작된 영웅소설의 배경이 중국이 아닌 조선이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 ❸ <홍계월전>은 조선 후기에 창작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 ❹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영웅소설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보조자료 b>

㉠ 그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가족들과 서로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언제나 존경을 받지만, 우리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언제나 하대를 받고 천하거든. 감히 말을 탈 수도 없고, 양반만 보면 저절로 기가 죽어서 굽실거리며 영금영금 기어가서 뜰 밑에서 절해야 하지. 코가 땅에 닿도록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면서 우리네는 줄곧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거든. 마침 저 양반이 가난해서 환자를 갖지 못해 몹시 곤란해질 모양이야. 참으로 그 양반이라는 자리도 지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사서 가져야겠어.”

부자는 곧 양반의 집을 찾아가서 환자를 대신 갚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면서 허락하였다. 부자는 곧바로 곡식을 관가에 보내어 갚았다. 군수는 매우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직접 양반을 찾아가 위로하면서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양반은 병거지를 쓰고 배잠방이를 입은 채 길바닥에 엎드려 ‘원네’라고 칭하면서 감히 올려다보지를 못하였다.

- 박지원 作<sup>148)</sup>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관련된 작품

國事蒼黃日	나라일이 다급해진 날에	선조 임금의 멀리 의주까지 피란가서 지은 시이다. 밀릴 대로 밀려서, 국경 관문이 있는 산에서 달을 보고 통곡하고, 압록강 바람을 쏘이며 상심해 하는 처참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sup>149)</sup>
誰能郭李忠	누가 곽·이처럼 충성을 하리.	
去邪存大計	서울을 떠나도 큰 계책이 남았으니,	
恢復仗諸公	회복이 제공들에게 달렸도다.	
通哭關山月	관산의 달을 보고 통곡하고,	
傷心鴨水風	압록강 바람에 상심하노라.	
朝臣今日後	조선들이여 오늘 이후에도	
寧復更西東	다시금 서인이니 동인이니 하려는가.	

- 선조(1552~1608) 作<sup>150)</sup>

靑石嶺 지나거나 草河溝   어디메오	마지못해 몸을 움직이는 거동이 선연하게 그려져 있고, 찬 바람 곳은 비로 모진 수난을 나타낸 데 이르러서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몸은 가고 있으면서 마음은 남이라고 한 아버지 임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몇 단계에 걸쳐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굽힐 줄 모르는 의지를 암시했다. <sup>151)</sup>
胡風도 춤도출샤 구즌 비는 무슴일고	
뉘라셔 내 行色 그려내어 님 겨신 되 드릴고	

- 효종(1619~1659) 作<sup>152)</sup>

⑤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 종교의 모습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148) 박영목, 『국어 ⑤』, 천재교육, 2009, 93쪽 재인용.  
 149) 조동일, 앞의 책, 13쪽.  
 150) 조동일, 앞의 책, 13쪽 재인용.  
 151) 조동일, 앞의 책, 39쪽.  
 152) 조동일, 앞의 책, 37~38쪽 재인용.

<보조자료 c>

㉠ 천신 신앙과 수신신앙

고대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모든 신 가운데 하늘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는 천신 신앙이 자리 잡았다. 천신 신앙은 고대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지배계층이나 새로 복속시킨 지역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수신신앙은 신화에서 모계혈통으로 등장한다. 예로 주몽의 외가인 화백, 혁거세의 부인 알영이 수신(水神)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두 신앙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예로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 신화>, <김수로왕 신화> 등이 있다.<sup>153)</sup>

㉡ 불교

有僧白毫垂繡幌	백발의 스님이 검은 승복을 입고
松葉稀葉或沾喉	솔잎에 떨어진 죽으로 목을 축이고
葛絲煖帽常覆額	갈사로 만든 방한모로 이마를 가린
花開花落了不省	꽃이 피고 꽃이 저도 거들떠보지 않고
雲來雲去只同閑	오가는 구름처럼 한가할 뿐

- 정약용 作<sup>1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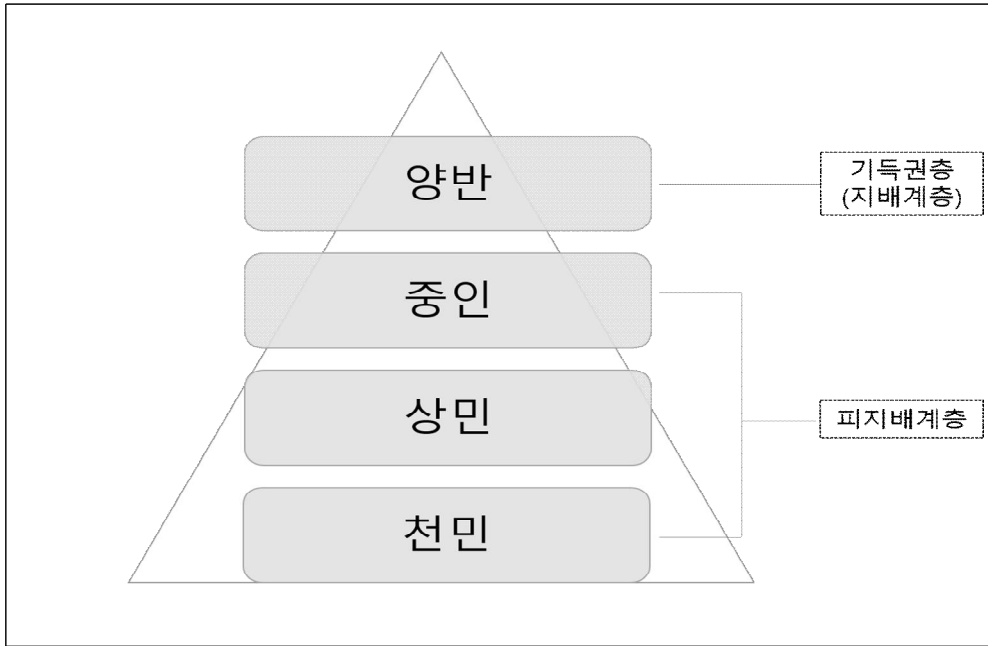
정약용은 연담 스님을 1778년 무렵에 만났다. 정약용은 둘째 형과 함께 동림사에서 학문에 정진하였고, 동림사에는 교학과 선에 밝은 연담유일(1720~1799)가 있었다. 정약용의 부친이 두 아들을 동림사에서 공부하게 하였다는 것에서 정약용의 부친과 연담유일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정약용은 연담유일을 위해 <지리산승가>를 지었다. 이 시는 정약용이 17세에 지은 것으로, 어린 나이에 불교의 경지를 읊었다는 것에서 그의 불교에 대한 지식이 깊음을 알 수 있다.<sup>155)</sup>

㉢ 도교

도교는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로,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신선 사상과 민간신앙 등이 결합하여 성립하였다.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한다. 호부침(胡孚琛)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도교의 신선세계와 기독교의 천국 불교의 극락세계는 상당히 서로 다르다. 그것은 현세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현실 세계 인간 생활 욕망에 대하여 최대한의 긍정을 준다. 상층의 신선 도교는 일단 시작에서 금욕주의로서 기초 삼는 종교가 아니다. 도교의 신선 세계는 현실 세계로 기초를 삼은 것이고 이는 현세 세계에 대한 종교적 보상이자 인간생활 욕망에 대한 허상으로 연장이다.<sup>156)</sup>

㉣ 유교



<발문 B>의 ❶은 <홍계월전>의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한 이유를 묻는 발문이다. 앞 장에서 파악한 배경 설정의 세 가지 이유 중 작가와 사회·문화적 배경 모두와 연관이 있는 ‘현실 비판’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발문 ❶은 소설의 내적 배경을 묻는 폐쇄형 질문이다. 때문에 학습자는 ‘명나라’라는 단일한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이어 교사가 학습자에게 다시 개방형 발문인 ❷를 통해 배경의 전환이 불러일으킬 현상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학습자는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한 이유를 학습하기 전이다. 때문에 그 이유를 학습자가 ‘사회에 대한 반발 혹은 민중의 염원’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영웅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떨 때 영웅의 등장을 바랄까요?”와 같은 발문을 사용하여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것은 ‘계월의 영웅적 활약을 통한 민중의 수난 극복’이라는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왜 작가가 작품의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관하여 ‘작가의 신변 위협’을 설명을 할 수 있다.

153) 서대석, 앞의 책, 51~52쪽 참고.

154) 다산 정약용의 시 <지리산승가>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박동춘, 『조선의 선비 불교를 만나다』, 이른아침, 2017, 59쪽 재인용.

155) 박동춘, 앞의 책, 58~59쪽 참고.

156) 김정은, 『조선 후기 <요지연도(瑤池宴圖)>에 표현된 생명관 - 도교적(道教的) 생명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44쪽 재인용.

발문 ㉓은 <홍계월전>이 창작된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발문은 막연히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묻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보조자료 b>를 제시하고, ㉔를 발문함으로써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조자료 b>의 ㉕은 <양반전>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대중성이 높은 작품이다. 때문에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고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발췌한 내용은 신분을 사고과는 양반과 평민의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다. 신분 매매의 모습은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분제 붕괴와 부농의 등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 <보조자료 b>의 ㉖는 실제로 임병양란을 겪은 조선의 왕 선조와 효종의 작품이다. 짧은 시조이지만 작품 전체를 학습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비되므로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 및 해설을 첨가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두 작품을 통해 학습자는 전쟁으로 인한 임금의 근심과 슬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난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학습자는 <보조자료 b>를 활용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의 창작 배경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발문 ㉗는 작품에 반영된 종교의 모습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학습자의 대부분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조선의 종교는 ‘유교’라 답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보조자료 c>를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조선 시대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먼저 천신 신앙과 수신신앙이다. <보조자료 c>의 ㉘ 천신과 수신신앙은 천신 신앙과 수신신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사는 천신과 수신의 숭배 이유를 당시 생업인 ‘농경’과 관련지어 “농사할 때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력은 학습자가 답하고 그 연장선에서 농경과 관련지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자료 c>의 ㉙ 불교는 조선 후기 불교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 대표적 유학자인 정약용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이 작품은 조선은 억불(抑佛)을 내세웠으나 유불(儒佛)이 함께하였음을 인지하게 한다. 또한 교사는 계월이 ‘세존’의 지시로 천상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공덕’을 쌓아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학습자가 찾을 수 있도록 불교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보조자료



c>의 ㉔ 도교는 조선 후기 도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도교는 ‘민중의 현실 세계에서 불안, 고통 등을 종교적으로 보상하여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의 종교적 보상은 허상의 연장이다. 따라서 교사는 민중이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소설을 통해 욕망, 즉 바람을 이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때문에 교사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작품에 나타난 비현실적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계월의 ‘도술’이 도교적 요소임을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자료 c>의 ㉕은 조선 정치의 기반인 유교와 관련된 신분 계층 표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유교 사상’으로 인해 ‘능력’이 있는 인물이 ‘사회적 차별’로 사회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파악하는 기저는 신분제로, 연장선에서 남성과 여성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보조자료 c>를 활용하여 각 종교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작품 속 종교의 반영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영웅소설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다.**

<표 6>의 학습 목표 ⑥은 국문학의 하위 갈래인 영웅소설의 전개 및 구현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영웅소설 <홍계월전>을 활용하여 영웅소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물 부분에서 추출한 ‘전형적 성격의 관습화’와 배경 부분의 ‘작품의 수용과정’을 활용하고자 한다.

#### <발문 C>

- ❶ 주인공은 신적(神的) 존재입니다. 이러한 주인공 신분의 근거는 영웅의 일대기 중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 ❷ 주인공은 민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민중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p>&lt;보조자료 d&gt;</p>
<p>㉠ 조선 시대 여성과 출입</p> <p>전통사회 여성은 도시 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p> <p>부인 출입이 중대하니 아니할 일이어든 출입하지 말고, 본가 부모 생신이나 대사를 지내거나 하거든 다니고 부질없는 출입은 마라</p> <p style="text-align: right;">- 우암계녀서 중 일부 발췌</p> <p>웬만한 일이면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겨우 본가 부모 생신(生辰)이나 혼상(婚喪)같은 대사 때에나 떳떳이 출입할 수 있고 심지어 평소의 근친(觀親)도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sup>157)</sup></p>
<p>㉡ 내외(內外)</p> <p>남녀유별은 유교가 표방하는 주요 실천 덕목으로, ‘내외(內外)’라는 명분에 의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내외 구분은 엄격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장권과 주부권이 있다. 내외 구분에 따르면 남자는 집 밖의 일(바깥살림)을 담당하고 여자는 집안의 일(안살림)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경제생활에서 가장은 수입과 관리를, 주부는 지출을 담당한다. 아울러 종교생활의 경우 가장은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담당하고 주부는 가신 신앙을 모시면서 이를 관할한다. 자녀 양육에서도 딸의 교육은 어머니가 전담하고, 아들은 예닐곱 살까지는 안채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사리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일곱 살쯤이 되면 사랑채로 건너간다.<sup>158)</sup></p>
<p>㉢ 조선 시대 여성과 학문</p> <p>부인 여자로도 마땅히 시서와 사기와 소학과 내축을 읽어 역대의 나라 이름과 선대 조상의 명자를 알지니, 그러하나 문필에 공교하고 시사에 찬란함은 오히려 창기의 본색이오 사부의 부녀가 행할 바 아니더라</p> <p style="text-align: right;">- 규중요람 중 일부 발췌</p> <p>즉 부녀자는 시경(時經)·서경(書經)·사기(史記)·소학(小學)·예기(禮記)의 내칙(內則)을 읽고 역대 국호(國號)와 선대 조상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장이 공교(工巧)하여 시사(詩詞)에 능란함은 오히려 창기(娼妓)의 본색이므로 사대부가의 부녀자가 할 바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다.</p> <p>즉 「시경(時經)」으로서 정서를 통하여 마음을 바로 잡고, 「서경(書經)」을 통하여 당우삼대(唐虞三代)의 동양적인 이상사회와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터득하며, 사기(史記)로서 역대 치란(治亂)의 자취를 살피고, 학문과 수신(修身)의 요체(要諦)를 「소</p>

학(小學)」으로서, 부녀자의 몸가짐을 「내칙(內則)」에서 배우면 실상 여자가 배울 것을 다 배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sup>159)</sup>

㉞ 소학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자이다. 따라서 독단으로 판단하는 의(義)가 없고, 세 가지 따르는 도(道)가 있으니[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집(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 감히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가르침과 명령이 규문(閨門)을 나가지 않으며 부인의 일은 음식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을 뿐이다.<sup>160)</sup>

- 소학(小學) 중 일부 발췌

㉟ 조선 시대 여성의 삶<sup>161)</sup>



옷감을 마름질하고 바느질하는 모습. 조선의 부인들은 모두 디자이너였고 기술자였다. (보편적인 조선 여성의 모습)

남편을 따라 순절한 안동 김씨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정절이 강조되던 시기, 집안마다 이런 내용의 책이 많이 간행되었고, 이를 가문의 자랑으로 여겼다. (보편적인 조선 여성의 모습)

157) 신경숙, 『전통사회의 여성생활』, 대광문화사, 1986, 35쪽.  
 1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204쪽.  
 159) 신경숙, 앞의 책, 37~38쪽.  
 160)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38쪽.

	
<p>조선의 여인들에게 육아는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사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태교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태교신기』를 지어 사회의 고정관념에 맞섰다. (보편적인 조선 여성의 모습과 대조적인 여성의 모습)</p>	<p>선비들이 붓을 넣어 차고 다니는 주머니이다. 여성들에게는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몇몇 여성들은 끝내 재능을 숨기지 못하고 글을 남겼다. (보편적인 조선 여성의 모습과 대조적인 여성의 모습)</p>

㉓ 영웅소설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작품군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향유되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p>&lt;보조자료 e&gt;          ㉑ 전기수<sup>162)</sup></p> <p>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언문 패설을 구송하는데 &lt;숙향전&gt;, &lt;소대성전&gt;, &lt;심청전&gt;, &lt;설인귀전&gt; 등 전기류이다. 월초에 하루는 제일교 밑에 앉고, 이튿날은 이교 밑에 앉고, 사흘째는 이현에서, 나흘째는 교동 입구에서, 다섯째는 대사동 입구, 엿새째는 종루 앞에 자리를 잡는다. 읽는 솜씨가 훌륭하여 주의에 많이 모여든다. 무릇 가장 긴요해서 가히 들을 만한 대목에 이르면 문득 소리를 멈춘다. 사람들이 그 다음을 듣고자 하여 다투어 돈을 던지는데 이것을 요전법(邀錢法)이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조수삼의 &lt;추재기이&gt;에서</p>
--

161) 조선 시대 여성의 모습과 관련된 자료로, 일부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앞의 책, 서론.

㉔ 세책가와 방각본업자<sup>163)</sup>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유행하자 주로 필사본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나 가게를 세책가라 하였으며, 소설의 대량 생산을 업으로 한 사람을 방각본업자라고 하였다. 이들은 전기수와 함께 중요한 소설 유통업자였다.

<발문 C>의 ㉑은 구조적 관습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발문은 계월이 신적(神的) 존재이며, 계월에게 신성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일대기에 있음을 밝힌다. 교사는 학습자가 발문에서 ‘신(神)’이라는 키워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른 발문을 통해 조력할 수 있다. “계월은 맹길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사실이 들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계월의 모습은 계월의 출생 신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월 본연의 신분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발문은 예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 발문에 내재한 힌트를 알아차리게 한다. 또한 발표 및 판서를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를 조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움으로 학습자는 계월의 일대기를 상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탄생’이라는 답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발문 ㉒는 인물의 전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발문만으로는 학습자가 교사의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없다. 때문에 발문 ㉒와 연계된 다른 발문을 통해 조력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계월이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파악하게끔 “계월은 남성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발문할 수 있다. 이 발문은 계월의 소망은 민중의 소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초적 물음이다. ‘부모의 제를 지내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답은 이어지는 발문을 통해 구체화 된다. “그렇다면 계월의 소망과 그 원인을 사회적 배경과 연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제사를 지내고 사회에

162) 전기수에 관한 내용은 천재교과서의 고등학교 문학 지도서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지도서』, 천재교과서, 2019, 95쪽 재인용.

163) 세책가에 대한 내용은 천재교과서의 고등학교 문학 지도서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김동환 외, 앞의 책, 88쪽 재인용.

진출하는 데 계월은 왜 굳이 남성이 되어야 했을까요?” 교사는 이와 같이 발문 하며,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참고자료로 <보조자료 d>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사고(思考)를 도울 수 있다. <보조자료 d>의 ㉠ 조선 시대 여성과 출입은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sup>164)</sup>를 인용하여 조선 시대 여성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 시대의 여성은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보충자료인 <보조자료 d>의 ㉡ 내외(内外)를 활용하여 그 원인이 유교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보조자료 d>의 ㉢ 조선 시대 여성과 학문은 조선 시대 여성이 배우는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그들이 국호(國號)와 조상의 이름, 부녀자의 몸가짐 등을 익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 자료를 보충하는 <보조자료 d>의 ㉣ 소학은 조선 시대 여성이 배우는 학문 중 하나로, 이를 인용하여 당시 여성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보조자료 d>의 ㉤ 조선 시대 여성의 삶은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활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자료는 당대 여성의 모습과 그에 대비되는 모습 모두를 보여주어, 학습자가 변화하는 여성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보조자료 d>의 활용은 학습자가 사회 전반에 내재한 차별 양상을 스스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계월이 남성이 되고자 하였던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보조자료 d>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사회적 원인이 ‘민중의 소원과 일치’하며, 이러한 양상은 ‘계월이 민중을 대표’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학습 결과는 계월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보국’이 민중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대부 세력을 대표’한다는 것에 도달하는 밑바탕이 된다.

발문 ③은 영웅소설이 유행하던 원인을 찾고 향유된 방식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유행하던 이유를 파악하게끔 조력하여야 한다. 조력의 자료로는 83쪽의 <보조자료 b>가 있다. <보조자료 b>는 영웅소설이 창작된 조선 후기 사회의 배경을 파악하는 자료이다.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혼란한 사회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영웅을 소망’하였기 때

164) 『계녀서』는 부덕(婦德) 교육을 위한 대표적 저술로, 송시열의 장녀가 출가할 때 국문으로 부녀가 행할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의 도리를 상세하게 적은 훈계이다. 그 예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 남편을 받드는 도리, 형제간의 화목하는 도리 등이 있다.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한국사상과문화』 제2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92쪽 참고.

문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향유되었을지에 관하여는 <보조자료 e>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은 전기수, ㉡은 세책가와 방각본업자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 보조자료들은 영웅소설의 향유 방법을 말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영웅소설 유통 방법 또한 알게 한다.

**(4)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표 6>의 학습 목표 ㉠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학습 목표에서 작품과 현대사회 모습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현재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건 부분의 ‘갈등’을 활용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유사성과 가치에 대한 발문도 제시하고자 한다.

#### <발문 D>

- ❶ 문학은 창작 당시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영웅소설 역시 문학작품으로 조선 후기 즉,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 현실이 무엇인지 사건의 주체인 영웅의 갈등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 이야기해봅시다.
- ❷ 영웅의 모습은 민중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문학 반영은 사회 구성원인 민중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합의를 통해 객관성을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❸ 작품 속 인물 중 진보적 성격을 가진 인물은 누구인가요?

발문 ❶은 계월의 갈등을 통해 사회 현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는 계월의 갈등 양상이 개인·사회·운명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먼저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 관한 발문으로 “보국은 서달의 난에서 승리한 후, 계월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를 할 수 있다. 이 발문은 계월과 갈등을 겪는 인물을 바로 언급하고, 그 인물의 시각에서 계월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보국의 생각과 행동은 직접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많아, 학습자는 보국이 태도를 바꾼 계기

를 쉽게 찾아 답할 수 있다. ‘계월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잡게 보기 때문’이라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원인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 방법을 교사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여성이라는 성별이 어떠한 점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갈등이 일어나나요?”와 같이 발문하여 작품 창작 때의 배경과 성별을 엮어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유교가 팽배하던 당시, 여성이라는 성별은 사회적 진출을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 발문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사회와의 갈등으로 확산됨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계월과 맹길의 갈등으로도 나타난다. 이 둘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월의 고난을 활용할 수 있다. “계월은 장시랑의 난을 피하는 도중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계월을 죽이고자 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 발문은 ‘맹길’이라는 답을 요구한다. 이후 교사는 “맹길은 후에 계월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둘이 재회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라고 발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전쟁터’라는 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발문은 폐쇄형으로, 계월과 맹길의 관계를 파악하는 근간이 된다. 이밖에 ‘계월은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한 운명과의 갈등’을 겪는다. 이에 대한 발문으로 교사는 “계월은 남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제를 지내는 것과 임신양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성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무엇 때문일까요?”라고 물을 수 있다. 계월이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를 사회적 측면에서 찾도록 유도하는 발문이다. 이 발문은 계월과 보국의 갈등 원인과도 연관이 있으며, 천자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학습자는 “계월과 맹길의 갈등은 맹길이 죽음으로써 해소됩니다. 다른 갈등들은 모두 누군가로 인해 해소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천자’라는 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어 교사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천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라는 발문을 통해 천자의 사회적 지위를 학습자가 인지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때문에 계월의 갈등이 현실의 장(長)인 천자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해소된다는 점에서 영웅의 모습은 민중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사의 발문을 통해 영웅의 갈등이 사회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학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



한 학습 요소는 발문 ②로 이어서 나타난다. ②는 현대사회의 지식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와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발문이다. 이 발문 후에 교사는 “이육사, 윤동주는 대표적 저항 시인입니다. 그들의 작품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학작품에는 사회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사회적 배경이 작품에 반영되고 다독(多讀)되었다는 것은 민중의 동감(同感)을 얻어 합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합의를 통해 객관성을 얻은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라고 발문할 수 있다. 이 발문은 영웅소설과 같이 민중의 합의를 얻은 문학의 예를 들어주고, 문학작품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작품과 현대 사회와의 유사성을 찾게 한다.

③은 <홍계월전>에서 진보성을 띠는 인물을 찾는 발문으로, <홍계월전>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홍계월전>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적 이념이 내재해 있는 작품임을 밝혀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전통적 이념과는 다른 가치관 및 사상을 가진 인물을 찾기 수월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교사는 “당시는 유교로 인해 남녀 간의 내외, 여필종부, 남존여비 등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유교적 이념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봅시다.”라 발문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만일 그 인물들이 진보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작품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라고 발문하여 학습자가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정(想定)은 학습자가 사회의 변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홍계월전>의 인물들처럼 진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을 학습하는 기저가 될 것이라 본다.

### 3) 협동학습

(1)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문학작품을 생활화 할 수 있다.

<표 6>의 학습 목표 ②는 주체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의 주체적 해석이 학습 목표인 만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홍계월

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구성원 즉,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였을 때 그들이 동의를 할 만한 해석이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이란 타인과 공유하여 합의를 통해 객관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작품의 이해 및 해석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때 학습자가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판하여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습자의 독자적 작품의 이해 및 해석이 마무리되면, 다른 학습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비교하여 보는 시간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 및 해석을 다듬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학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학습자의 문학작품 생활화를 돕는다.

### (2) 작품을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표 6>의 학습 목표 ④는 작품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학습자 간의 소통은 학습자의 내면화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가 상호소통하며 주관적 지식을 객관적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문학작품은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홍계월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수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도 해석의 다양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 (3)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창작을 할 수 있다.

<표 6>의 학습 목표 ⑤는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협동 창작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동 창작은 약 6명의 학습자가 한 모듬이 되어 영웅소설의 한 단락을 창작하는 활동으로 '협동'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모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 영웅의 일대기에 맞춰 한 명씩 소단락을 맡아 창작하도록 구성하였다. 개별적으로 창작된 여섯 개의 작품은 또 하나의 큰 작품으로 모듬 구성원의 공동 작품이

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개별적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모둠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모두의 생각을 반영하는 공동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둠 구성원의 작품 하나하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여섯 단락을 융합하였을 때 짜임새 있는 하나의 영웅소설이 되도록 충분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모둠 구성원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어야 하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협동 창작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사는 학습자에게 영웅소설의 서사적 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하나의 작품을 창작할 것임을 말한다.
- ② 교사는 약 6명이 한 모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둠원을 구성한다.
- ③ 교사는 모둠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협동학습이기 때문에 모둠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 ④ 교사는 협동 창작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영웅소설의 여섯 가지 서사적 구성을 모둠 구성원 한 명씩 맡아 각각 한 단락 분량의 소설을 만든다.
  - ㉡ 각 단락을 합쳤을 때,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어져야 하므로 본격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기에 앞서 모둠 구성원끼리 충분한 이야기가 오가야 한다.
  - ㉢ 모둠 구성원끼리 충분히 소통이 되었으면, 이야기 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다.
  - ㉣ 모둠 구성원 전체가 한 단락 분량의 글을 완성한 후, 여섯 단락을 이어 읽어보고 첨삭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역시 모둠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영웅소설의 서사적 구성 여섯 가지를 시간 순서에 맞게 칠판에 정리해 본다.
- ⑥ 교사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학습자에게 지도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 영웅의 의미 확립
  - ㉥ 영웅이 영웅적 일을 할 공간적 배경 설정
  - ㉦ 영웅의 영웅적 행동 양상
- ⑦ 교사는 모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습자의 책상 또는 의자를 돌려 앉게 한다. 모둠원은 앞선 예시를 바탕으로 하여 영웅소설 창작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⑧ 모둠원은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간다.
- ⑨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으면 각자 맡은 서사적 구성에 따라 글을 쓴다.
- ⑩ 먼저 글을 쓴 학습자의 경우 서로의 작품을 읽어보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⑪ 모든 모둠 구성원의 창작이 끝났으면 여섯 가지 서사적 구성을 합쳐 읽어보고 첨삭한다.
- ⑫ 모든 모듬이 첨삭을 완료한 후 발표를 한다. 이때 어떠한 계획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이러한 서사 단락을 가진 작품을 창작하였음을 말한다.

### 3. 정리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자유로운 사고(思考) 전달을 위해 발표 수업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그간 <홍계월전>을 수업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을 모듬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말하는데, 이때 앞사람이 말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의 차례 이전에 두 명이 발표하였다면 그 두 사람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말한 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발표하는 것이다. 만일 소속 모듬 구성원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모듬은 릴레이에서 탈락하며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학습자가 속해 있는 모듬이 이긴다. 이와 같은 정리는 릴레이 게임 형식을 띠기 때문에 학습자의 승부욕을 자극하여 마지막까지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밖에도 활동지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활동지>



질문 ① 주인공 계월은 국가가 위협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만일 국가 혹은 사회가 위기에 맞닥뜨렸다면, 계월처럼 모두를 위해 위협을 무릅쓸 수 있나요?

질문 ② 계월이 전쟁에 참여하여 영웅적 면모를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계월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 당시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위 활동지는 계월의 전쟁참여 이유를 통해 계월의 욕구, 즉 민중의 요구이자 소원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질문 ①은 학습자가 계월의 모습을 자신과 동기화하여 생각하게 한다. 이 질문은 전쟁 중 계월의 영웅적 활약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가 계월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학습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학습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이 물음은 마치 계월이 공동체 모두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하지만 학습자는 <홍계월전> 학습 시, 계월의 전쟁참여 원인이 계월의 희생보다는 남성이 되고 싶은 본인의 욕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배웠다. 즉 해당 질문은 학습 내용과 모순이 있다. 이러한 모순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토록 한다. 때문에 학습자는 수업의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교사는 학습자가 질문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질문 ②는 질문 ①의 모순을 해결하는 물음이다. 학습자는 계월이 전쟁에 참여한 근원적 원인을 통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당시 민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본 연구는 <홍계월전>에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과 수업 및 학습에 대한 관점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홍계월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회학적 비평 방법을 활용하여 사건, 인물, 배경,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학적 비평 방법은 문학작품 창작 당시 사회·문화 등의 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홍계월전>을 사회학적 비평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라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II장에서는 <홍계월전> 이해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과 수업 및 학습에 대한 관점을 밝히었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를 <홍계월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영웅소설이 적용된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육적 활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III장에서는 <홍계월전>의 구성적 특이성을 통해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여 작품 선정의 근거를 밝혔다. 그 근거로 첫째, <홍계월전>의 주인공 계월은 여화위남을 기준으로 남성성을 획득 및 상실하였다. 둘째,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에 따라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의 모습이 나타난다. 셋째, 가치관 및 사상의 근대화로 인한 등장인물의 진보적 모습은 학습자에게 진보적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홍계월전>의 성격은 합의의 개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와 연관성이 있으며, <홍계월전>의 교육적 가치 재발견의 기틀이다.

IV장에서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홍계월전>을 사건, 인물, 배경, 주제로 나누어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홍계월전>의 교수·학습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항목별 세부학습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건 부분에서는 영웅소설의 근원과 계월의 갈등 양상에 대해 교수가 가능하다. 인물 부분에서는 주요 인물 계월과 그를 돕는 조력자 여공과 도사의 역할, 구조 및 인물의 전형적 성격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배경 부분의 학습 요소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중국으로 선정한 이유, 작품의 창작 배경 및 수용과정과 종교의 반영이 있다. 또한 주제 부분의 학습 요소는 <홍계월전>의 창작 배경을 바탕으로 하였

을 때, 세월이 민중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있다.

V장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육적 활용 기준을 바탕으로 추출된 세부학습 요소를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분류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교육적 활용 기준 중 흥미성을 중심으로 교수의 예를 들었다. 그 예로 문학 및 갈래의 모습과 전개 배경, 작품 창작 당시의 사회 모습과 오늘날의 유사성을 활용하였다. 교수 전략으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매체를 사용하였다. 전개 부분에서는 교육적 활용 기준 중 적극성과 협동성에 초점을 맞춰 교수의 예를 제시하였다. 먼저 적극성을 적용한 문답식 교수법이다. 학습자가 서사문학의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다. 또한 작품의 전개와 구현 양상, 작품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협동성을 적용한 협동학습 부분에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며 협동작품을 창작하게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과 이를 구체화한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해 영웅소설이 적용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모든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영웅소설은 구성적 측면에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영웅소설의 공통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 요소와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홍계월전>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은 영웅소설 전체로 확대되어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홍계월전>을 여성의식,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성을 띠며 사회적 갈등을 축대로 하여 평등을 요구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구성주의를 적용한 <홍계월전> 교수·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교육부a,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교육부, 2015
- 교육부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교육부, 2015
- 교육부c,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교육부, 2016
- 교육부d,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4-74호, [별책7], 교육부, 2015
- 교육부e,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3], 교육부, 2015
- 고형진 외, 『고등 국어』, 동아출판, 2018
- 김동환 외, 『고등 국어』, 동아출판, 2018
- \_\_\_\_\_ ,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9
- \_\_\_\_\_ , 『고등학교 문학 지도서』, 천재교과서, 2019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 2018
- 류수열 외, 『고등 국어』, 금성, 2018
- \_\_\_\_\_ , 『고등 문학』, 금성, 2019
- 민현식 외, 『고등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 박안수 외, 『고등 국어』, 비상교육, 2018
- 박영목 외, 『국어 ⑤』, 천재교육, 2009
- \_\_\_\_\_ , 『고등 국어』, 천재교육, 2018
- 박영민 외, 『고등 국어』, 비상교육, 2018
- 방민호 외, 『고등 문학』, 미래엔, 2019
- 이성영 외, 『고등 국어』, 천재교육, 2018
- 이삼형 외, 『고등 국어』, 지학사, 2018
- 이승원 외, 『고등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신유식 외, 『고등 국어』, 미래엔, 2019  
 정민 외, 『고등 국어』, 해냄에듀, 2018  
 정재찬 외, 『고등 문학』, 지학사, 2019  
 정호웅 외, 『고등 문학』, 천재교육, 2019  
 조정래 외, 『고등 문학』, 해냄에듀, 2019  
 최원식 외, 『고등 국어』, 창비교육, 2019  
 \_\_\_\_\_, 『고등 문학』, 창비교육, 2019  
 한철우 외, 『고등 문학』, 비상교육, 2019

## 2. 단행본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강인애,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2003  
 강인애 외 8명,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199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김은철 외 1명, 『新 문학의 이해』, 우리문학사, 1998  
 김재춘 외 4명,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10  
 김관수 외 6명,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2000  
 김해성, 『신 문학원론』, 대광문화사, 1988  
 김현섭,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한국협동센터, 2015  
 동아출판 사서편집국, 『표준 국어 대사전 - 중』, 동아출판, 1999  
 문학이론연구회, 『문학개론』, 새문사, 2000  
 박동춘, 『조선의 선비 불교를 만나다』, 이른아침, 2017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관계의 교육학』, 살림터, 2015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스펜서 케이건, 중앙기독교초등학교협동학습연구회 엮음, 『협동학습:열린 교육에 신바람을 일으킨 협동학습 실전 매뉴얼』, 디모데, 1999

- 신정숙, 『전통사회의 여성생활』, 대광문화사, 1986
-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4
- 윌리엄 데이빗 로스, 김진성 옮김, 『아리스토텔레스-그의 저술과 사상에 대한 총설』, 누멘, 2011
- 유리 카르포프, 실천교육교사번역팀 옮김, 『교사와 부모를 위한 비고츠키 교육학 -네오비고츠키주의 아동발달이론』, 살림터, 2017
- 유창근, 『문학비평연구』, 태영출판사, 2008
- 이상우, 『협동학습, 교사를 바꾸다』, 시그마프레스, 2012
- 이명재 외 1명, 『문학비평의 이해와 활용』, 경진, 2017
- 임성래, 『완판 영웅소설의 대중성』, 소명출판, 2007
- 임철성 외 3명, 『교사화법 교육』, 집문당, 2004
- 정병현 외 1명,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1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_\_\_\_\_, 『한국문학통사 3』 제3판, 지식산업사, 2002
-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큰사전65 호예-홍길동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
- 한순미, 『비고츠키와 교육(문화-역사적 접근)』, 교육과학사, 1999
- 한형식, 『수업 사례로 배우는 수업기술의 법칙』, 즐거운학교, 2010

### 3. 학술지

- 강명혜,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한국문학과예술』 제11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59~102쪽
- 곽정식, 「<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어문학』 제72집, 한국어문학회, 2001, 75~94쪽
- 곽춘옥, 「문학 교수·학습의 변인에 대한 고찰 - 텍스트, 학습자, 교사 변인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2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161~189쪽
- 김기홍, 「사회구성주의를 변호하며:사회와 자연의 사회적 구성과 자기준거성에

- 대하여, 『사회와이론』 제32집, 2018, 101~143쪽
-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한국사상과문화』 제2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91~114쪽
- 김성일, 「글 이해과정에서 흥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제8집, 한국심리학회, 273~301쪽
- 김성일 외 2명,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한국심리학회』 제1권 제14호, 한국심리학회지, 2008, 187~2221쪽
- 김용덕,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6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147~174쪽
- 김인규, 「조선후기 신분제 개혁론의 새로운 지평 - 身分主義에서 職分主義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동양고전연구』 제 30집, 동양고전학회, 2008, 133~160쪽
- 김종균,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 양상-남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언문연구』 제54권, 언문연구학회, 2007, 115~141쪽
- 김향인, 「사회구성주의와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9집,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344~360쪽
- 김현경, 「문단 쓰기 교수·학습 양상 연구」, 『어문학교육』 제36집, 2008, 109~142쪽
- 김현우, 「영웅소설의 변화와 대중성의 길」, 『한국학논집』 제27집, 2000, 157~72쪽
- 박승배,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제32집, 새한철학회, 363~380쪽
- 서진원, 「교육방법으로서의 구성주의와 구조주의의 비교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 2009, 81~92쪽
- 우연경, 「흥미 연구의 현재와 향후 연구 방향」, 『교육심리연구』 제4권 제26집, 한국교육심리학회, 2012, 1179~1199쪽
- 윤영돈, 「사회구성주의에서 본 도덕교육의 인문치료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논문집』 제44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4, 241~266쪽

-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제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263~292쪽
- 이정숙, 「교사의 중재에 따른 쓰기 지식의 변환」, 『청람어문교육』 제2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85~134쪽
- 임성규, 「구성주의와 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1, 5~31쪽
- 이복규, 「<주몽신화>의 뜻 풀이1 - 『삼국사기』소재 자료」, 『동방학』,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1996, 161~185쪽
- 임재훈 외 1명, 「조작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구성의 의미와 과정」, 『수학교육학연구』 제8집 1권, 대한수학교육학회, 1998, 299~312쪽
- 임주인, 「<홍계월전>과 <박해받는 승리자>에 나타난 남장의 의미 비교분석」, 『동서비교문학저널』 제23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0, 232~252쪽
- 임현아, 「<정수정전>에 나타난 성 역할 인식의 변화 고찰」, 『장서각』 제33집, 한국중앙연구원, 2015, 212~235쪽
- 장시광, 「여성영웅에 나타난 여화위남(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 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01, 302~338쪽
- 차옥덕, 「여도(女道) 거부를 통한 남성우월주의 극복-<홍계월전>, <정수정전>, <이형경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5집 2권, 1991, 292~252쪽
-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성균관법학』, 제19권 1호, 533~560쪽
-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231~267쪽

#### 4. 학위논문

- 김수현, 「읽기 교수·학습을 위한 질문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정은, 「조선 후기 <요지연도(瑤池宴圖)>에 표현된 생명관 - 도교적(道教的) 생명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재홍, 「논설문 쓰기 수업에서의 교사의 비계설정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진희, 「토론연극을 활용한 <방한립전> 교육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철희, 「비계설정을 통한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남지현, 「대화주의에 기반한 문학토의 수업의 구조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서현정, 「문학교육을 위한 발문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송선희,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효과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송하준,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상과 주제의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안순희,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박씨전>, <옥주호연>,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경숙, 「조선 후기 사회변동 교육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경숙, 「고등학교 지리수업에서 협동학습 전략이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소현, 「근접발달영역에 따른 소설 교수-학습 모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최미진자, 「소집단 협동학습이 학습부진 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수용에 미치는 사례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옥화,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을 통한 국어과 소집단 공동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Abstract>

## Th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of Honggyewoljeon Using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Kim Su-m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Hyun Seunghwan  
Academic Advis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regarding a hero novel. The target is *Honggyewoljeon* (translation: The Tale of Hong Gyewol), which corresponds to an educational curriculum in high school.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is applied for this purpose. Because a hero novel tends to make a learner feel separated and learn passively, the following methods are introduced.

First, the educational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ism is made clear to clarify th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following achievement standards. Second, the character of *Honggyewoljeon* is analyzed wherein it is identified that *Honggyewoljeon* is bisexual and progressive. Third, learning factors from *Honggyewoljeon* are gathered with the use of sociological criticism, which is based on the structural universality of a hero novel, becoming the found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Fourth, th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of *Honggyewoljeon* is laid out wherein the configuration is made for learning agents to be interactive. To this end, epilogue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are used. Seven achievement standards applied to a hero novel are all

accepted.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Honggyewoljeon from a new perspective, finding its educational value. It also lays out learning factors and th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following the universal structure of a hero novel. Therefore, its significance lies in its possible application to all hero novels. Moreover, it materializes and actualizes the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accessible to all achievement standards applied to a hero novel. These factors constitute the meaning of this study, which will help a professor's teaching at an education site where hero novels a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constructionism, Interaction among learning agents, Knowledge configuration through agreement, Hero novel education, Honggyewoljeon